

몸집 커진 금융지주, 우리사주 운영권 ‘뜨거운 감자’

스페셜 리포트

근로자 ‘자산증식·복지’ 목적
기준엔 은행 노조 도맡아 운영
자회사 편입으로 이해관계 얹혀
‘제3기구로 자리잡는 게 바람직’

최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우리사주를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합장 운영권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금융지주사가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권 문제는 더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4대 금융지주 ‘우리사주’ 보유 현황		
	지분율(보유주식)	조합장
KB금융	0.55%(약 250만 주)	KB국민은행 노조 소속
우리금융	6.39%(약 4300만 주)	우리은행 노조 소속
신한금융	5.07%(약 2400만 주)	신한금융지주 소속 상무
하나금융	0.88%(약 260만 주)	하나금융지주 소속 팀장

“현재 0.55%(약 250만 주)의 지분을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
류제강 KB금융 우리사주조합장

“최대 10%까지 지분 늘려 최대주주 되는 게 목표”
최인범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장

지주 차원에서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하고, 은행 노조 간부를 조합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동양·ABL 자산운용 인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비은행 자회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 움직임이다. 지주사 전환 전 우리은행만 단독으로 존재했을 경우 은행 노조가 우리사주조합 운영을 도맡아 왔지만 자회사 편입으로 우리사주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얹히면 이를 운영하는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정구한국증권금융우리사주지원센터장은 “출연은 계열사가 하기에 각 계열사 사주조합에 관련된 대의원들의 영향력에 달렸다”며 “외견상으로 지주사 우리사주조합 하나로 보이지만 계열사의 협조나 인식 없는 우리사주를 (독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이를 하나의 복지 수단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 골자다. 근로자

‘자산 증식’과 ‘복지’라는 두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사측보다는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권을 쥐는 것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우리사주제에 이러한 원칙은 없다. 의결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누구든 조합장이 될 수 있다.

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운영 주체에 대한 논란은 지주회사법상 모회사만 상장하는 특이성 때문이다. 금융사는 계열사가 지주로 편입되면 상장 폐지시키고 주식을 모회사로 이전시키곤 한다. 주식의 분산을 막아 모회사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다. 결국 현재의 금융지주사 체제는 주식은 ‘지주사’라는 하나로 수렴되는 반면, 우리사주조합에 얹힌 이해관계자는 늘어나는 모순을 만든다.

그러다보니 KB와 우리금융지주처럼 우리사주 운영을 주력 자회사인 은행 노조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이권 투쟁이 생겨나면서 사측과 노조는 조합원

운영을 두고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금융지주사 회장은 “우리사주는 상식적으로 경영진과 함께 가는 것인데 대립적으로 가 봐야 서로 유익한 게 없다”며 “투쟁 수단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양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은 돌의 줄다리기에 복지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사측이 운영권을 쥔 경우), 자신의 권리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거나(노조가 쥔 경우)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형만 우리사주지원센터 팀장은 “금융권이 특이한 경우”라며 “보통 노조와 별개로 우리사주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자산 증식 등의 결과물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노조와 사측이라는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 우리사주조합이 ‘제3의 기구’로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곽진산 기자 jinsan@

“금리인하 없다”는 韓銀
거꾸로 가는 시장 경제

역성장 쇼크에 장단기금리 역전
가계빚·韓美금리차로 한은 ‘딜레마’

한국은행이 경기와 금융 불균형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당장 1분기(1~3월) 경제성장률(GDP)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자 일부 전문가들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한은의 25일 1분기 GDP 발표 직후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1.8%로 낮췄고, ING도 한국의 2분기 성장이 더 부진할 수 있다며 한은이 2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봤다.

장단기 금리차도 1분기 성장률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역전됐다. 26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720%로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을 타깃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1.75%)와 3bp(1bp=0.01%포인트) 역전됐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소위 ‘R(Recession-불황)의 공포’로 불리는 경기침체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며 금리 인하를 시사한다.

소비자물가(CPI)도 3개월 연속 0%대 상승에 그쳤다. 3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4% 오르는 데 그쳐 2016년 7월(0.4%)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주요 교역국들의 물가상승보다도 낮은 것이다

경기를 바꾼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하지만 심각한 가계부채 등 금융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금순환 기준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789조8879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GDP(1782조2689억 원) 규모를 넘어섰다. 규모보다는 증가 속도가 우려스럽다. 미국연준(Fed) 금리(2.25~2.50%)와 한은 금리 간 역전폭은 75bp에 달한다는 점도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日 골든위크·中 노동절...관광객이 몰려온다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가 겹친 28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입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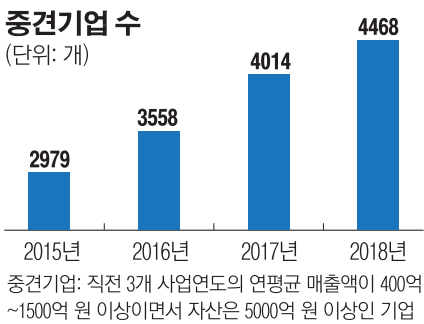
매년 400개 늘어난 중견기업...알고보니 ‘속 빈 강정’

정부 ‘대기업집단 지정’ 변경 영향
자발적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0’
혜택 감소로 ‘피터팬증후군’ 우려

중견기업 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분류 기준 변경으로 중견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이 회사를 키워 중견기업으로 도약한 사례는 전무하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2979개사였던 중견기업 수가 2016년 3558개, 2017년 4014개, 2018년엔 4468개로 매년 400곳 이상씩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한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400억~1500억 원 이상, 자산은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영리법인·2017년 기준)의 0.6%에 불과하지만 국내 기업 총 매출액의 14.1%(671조 원), 총 고용의



12.5%(125만 명)를 담당한다.

중견기업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매년) 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올렸다. 이로 인해 5조~10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 소속 기업 1035개(2016~2017년)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대거 전환됐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3년 유예기간’(중소기업기본법)이 지난해 지난해에 따라 중견기업 수가 늘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4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지난해 중견기업에 편입된 것이다. 당초 중견원 수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3000개가 넘었던 중견기업은 2014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기준을 명확히 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수가 확 줄었다.

이 기간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영실적을 끌어올려 중견기업이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통계상으로는 중견기업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는 제로(0)”라며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에 비해 정부의 지원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걸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자금, 인력 공급, 판로 확보 등 다방면에서 100여 가지의 혜택이 사라진다. 그러다 보니 과거 중소기업 시절에 받았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중견기업들도 적지 않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펠리세이드보다
더 큰 ‘SUV’ 만든다

현대차, 반응 좋아 라인업 다양화

현대자동차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라인업 다양화에 나섰다. 싼타페 윗급으로 등장한 대형 SUV ‘펠리세이드’가 실질적 수익성 회복에 힘을 보탠 만큼 이보다 더 큰 SUV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3년(또는 2024년) 출시를 목표로 펠리세이드 상위 SUV 개발을 검토 중이다. 애초 펠리세이드 개발 단계에서 함께 추진했던 롱바디 출시와 아예 급을 달리한 새 SUV 개발 의견이 상충됐으나 최근 새 모델을 내놓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LX2(펠리세이드 프로젝트명) 개발 때 복미를 염두에 두고 스트래치(차 길이를 늘린 롱 버전)를 함께 계획했었다”며 “구체적 개발 목표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LX2의 시장 반응이 긍정적인 만큼 윗급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꽤 많다”고 말했다.

펠리세이드는 최근 현대차의 실적 회복에 적잖은 힘을 보탤 전망이다. 현대차 1분기 판매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102만1377대에 머물렀다. 국내 판매가 8.7% 증가한 반면, 주력 시장인 중국과 미국이 각각 19.4%와 2.5% 감소했기 때문이다.

차 판매가 줄었음에도 매출(23조9871억 원)과 영업이익(8249억 원)은 각각 전년 대비 6.9%와 21.1% 증가했다. 차가 덜 팔린 반면, 팔아서 수익을 내는 차들이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평균 판매단가(ASP)가 약 7% 올랐다. 대형 SUV 펠리세이드를 비롯해 제네시스 G90 등 상대적으로 비싼 모델이 잇따라 등장한 덕이다. 애초 시장 전망을 넘어서는 인기로 힘입어 현대차는 이달부터 울산공장 펠리세이드 생산량을 월 6200여 대에서 40% 늘어난 8600여 대로 증산한 상태다.

김준형 기자 junior@

CJ대한통운 “박봉은 옛말... 노력한 만큼 번다” 택배기사 年평균 소득 6937만원

택배 기사들이 격무와 박봉에 시달린다는 것은 옛 이야기다. 이제는 노력한 만큼 연간 억대까지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택배 기사’가 떠오르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평균 연소득은 69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택배기사는 전체 통계 대상의 4.6%에 해당하는 559명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22.5%의 연소득은 80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71.5%는 연소득 6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 중에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유류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제의 순소득은 52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택배기사는 집배점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계약 사항 및 배송구역별, 개인별 비용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공제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국내 개인사업자 평균 사업 소득 429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역대 투자비가 필요한 가맹사업 등과 달리 택배기사는 1000만~2200만 원 상당의 1톤 트럭 1대만 투자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 한몫했다.

또 상위 소득자의 경우 주로 개인 영업을 통해 대형 거래처를 확보해 집화 업무에 집중하고 별도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해 배송 업무를 위탁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부부가 구역을 나눠 함께 배송해 총배달량과 수입을 높이고 있는 사례도 많다. 합산소득이 연 4억 원을 초과하는 경북지역의 모 택배기사 부부, 90% 이상의 소득을 배송으로 얻는 경기도 시흥의 모 택배기사 부부 등은 아르바이트를 쓰거나



年소득 1억 이상 고소득자 559명
상위 23%, 8000만원 이상 벌어
정북 택배기사 부부 年 4억 수입
물류 자동분류장치 ‘휠소터’ 도입
작업 강도 완화·배송 효율 향상

부부가 협력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연소득이 낮은 경우는 대부분 일을 시작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배송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송 물량을 조절한 경우로 분석된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연령에 관계없이 계약이 지속된다는 점 △배송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물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 △개인영업을 통해 집화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배송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물량이 증가했음에도 자동분류장치 ‘휠소터’ 도입과 배송밀집도 상승으로 작업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점도 업계에서는 반길 만한 변화다. 휠소터는 컨베이어 벨트에 내장된 소형 바퀴가 택배상자를 배송구역별로 자동 분류해주는 장비다. 휠

소터 도입으로 택배기사가 조를 편성해야 침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분류에 소요되던 시간을 배송으로 돌릴 수 있어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CJ대한통운은 휠소터에 1400여억 원을 투입해 현재 설치대상 178곳 중 93% 수준인 166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단위구역당 배송상자수가 늘어나면서 밀집도가 증가해 택배기사의 배송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

CJ대한통운관계자는 “택배산업은 배송·집화 기사뿐 아니라 택배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 간선차량 운전기사, 인력 도급회사,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형성돼 성장한 네트워크 산업”이라며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작업환경 개선, 상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동반성장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택배시장은 온라인·모바일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택배 물량은 총 25억4300만 개, 매출액은 5조66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6%, 8.7% 증가했다. CJ대한통운은 12억2440만 상자를 배송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48.2%에 이른다. 국내 경제활동인구(2758만 명) 1인당 연 44.4회 CJ대한통운 택배를 받은 셈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세계 국가수반 ‘연봉킹’ (18억7000만원)

세계 국가수반 가운데 연봉 랭킹 1위는 누구일까.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가 세계 정상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USA투데이가 24/7월스트리트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봉 4위였다.

24/7월스트리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 수반이 받는 연봉을 미국 달러화(작년 4월 환율 기준)로 환산했다. 그 결과 상위 20인의 연봉이 22만 달러(약 2억 6000만 원)에서 161만 달러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1위인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161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는다. 싱가포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8배가 넘는 수준이다. 리셴룽 총리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연봉의 12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램 행정장관이 연봉 56만8400달러로 리셴룽 총리의 뒤를 이었다.

연봉 랭킹 4위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

은 미국 1인당 GDP의 7배가량인 40만 달러를 받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봉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정상은 48만3000달러를 받는 스위스의 윌리 마우리 대통령이었다.

USA투데이는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직원의 1000배가 넘는 연봉을 받는 것처럼 상위 20개 국가 정상 연봉도 국민들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방 국가 정상들 대부분이 1인당 GDP의 6~8배, 북유럽 정상들은 5배 안팎의 연봉을 받고 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과테말라 정상은 각각 1인당 GDP의 22배, 31배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수반의 연봉이 상위권에 오른 국가는 경제 규모나 국민 생산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대통령 연봉이 33만 달러인 모리타니는 1인당 GDP가 3655달러에 불과했다.

김서영 기자 jung2@

국가 정상 연봉 순위

※ 출처: USA투데이

순위	나라	국가수반	연봉(달러)	1인당 GDP(달러)
1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161만	8만6810
2	홍콩	캐리 램 행정장관	56만8400	5만7081
3	스위스	윌리 마우리 대통령	48만2958	5만6473
4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40만	5만4440
5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37만8415	4만6554
6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36만9727	4만6719
7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	33만9862	3만5244
8	모리타니	무함마드 압델 아지즈 대통령	33만	3655
9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	32만8584	4만5478
10	룩셈부르크	그자비에 베텔 총리	27만8035	9만3891



한수원이 가장 잘 하는 일, 바로 에너지 채용입니다

원자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엇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권력수단 전략맨 勞使 모두 손해… 운영권 독립돼야”

금융권 우리사주 성공 해법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최근 두 금융회사의 주력 자회사인 은행의 노동조합이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조합원의 지분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노동조합이 우리사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사주 조합의 운영·관리 주체가 사측과 노동조합으로 양분되는 현상이다. 이에 본지는 24일 우리사주 전담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의 오정구 우리사주지원센터장을 만나 이 같은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KB·우리는 노조가, 신한·하나는 사측이 관리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KB금융은 지난달 6일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현재 0.55%(약 250만 주)의 지분을 3%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은행 중 최대 규모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율(6.39%)을 가진 우리은행도 지분을 10%까지 늘려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사주조합 운영 방식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은 조합의 대표와 임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KB금융은 국민은행 노조가, 우리금융은 우리은행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장을 겸임한다. 반면 하나금융은 지주 인사 팀장이, 신한금융은 지주 경영지원 상무가 조합장이다.



오정구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오 센터장은 “우리사주조합장을 경영진 혹은 노조가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다만 대의원 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면 된다”며 “우리사주 조합원은 대부분 노조 조합원이기도 하기에 자동적으로 노조 측 인사를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2009년 대법원에 우리사주조합장 지위 청구소송을 통해 인사부장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던 권한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바꿨다. 하지만 대표성을 갖췄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해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은행 노조가 우리사주 지분을 위임받아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잡음이 일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노조가 우리사주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주 우리사주로 은행 노조가 경영참여, 누구 맘대로?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노동조합’과 동의어로 읽힌다는 점이다. 우리사주의 도입 취지는 ‘노동자’의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일부 노조의 방향성을 공유하지만, 그 밖에 노조의 목적과는 갈래가 나뉜다. 사측과 임금단체 협상을 두고 대치할 때는 우리사주조

‘KB·우리’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장 겸임 ‘신한·하나’는 사측이 관리

해외선 펀드로 신탁사에 운영 맡겨 우리사주-노조 관계 선 그어

韓, 지분으로 영향력 행사 이익단체로 변질 우려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주주제안 사외이사 일지

시기	사외이사 추천	우리사주 지분 위임
2017년 11월 임시주총	하승수 변호사(찬성 17.78%로 부결)	92만2586주(0.22%)
2018년 3월 정기주총	관순원 숙명여대 교수(찬성 4.23%로 부결)	75만16557주(0.18%)
2019년 3월 정기주총	백승헌 변호사(자진 철퇴)	76만6764주(0.194%)

※ 지배구조법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제안이 가능.

※ 사외이사 선임 조건 :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참석, 참석 주주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함.

합이 오롯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제도가 각 이권에 휘둘러 움직이는 배경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고, 복지보다는 하나의 권력 수단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

김형만 우리사주지원센터 팀장은 “조합장이 노조위원장으로 인식되다 보니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역할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KB가 그런 사례”라고 밝혔다. 오 센터장은 “내외부와 지분 경쟁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내에선 우호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강성 노조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 세력화면 사측도 배제 내부에선 “정치적 이용” 불만 다양한 조합원 의견 경청과 경영진-노조 신뢰 갖고 운영 복지증진-재산증식 ‘두 토끼’

우리사주조합 운영권을 쥐고 있는 은행 노조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계열사의 의중은 반강제적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올해 초 KB국민은행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과 파업, 임단협 과정에서 몇몇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오 센터장은 “노조는 세력화하다 보면 사측에서도 배정을 하지 않는다. 지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이러면 양쪽 다 손해”라고 말했다. 은행이 카드, 증권, 보험 등의 자회사 조합원들의 요구를 대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 향상’과 ‘재산 증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 우리사주조합은 본래 우리사주운영위원회가 운영하도록 권장되지만 국내 우리사주조합은 규모가 작아 독립되지 못하고 노동조합이나 회사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금융권이 아닌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사주 조합장과 노동조합위원장이 분리돼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금융권 우리사주조합은 운영 주체가 사측과 노동조합으로 양분돼 있다. 김 팀장은 “회사와 협의가 잘 돼야 우리사주를 활성화하는데 노조와 같이 가면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며 “국내에서도 급속노조 등 대부분은 직선제를 통해 조합과 노조가 별도로 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장은 독일 한텔스방켄을 롤모델로 꼽았다. 한텔스방켄은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옥토고넨(Oktagonen)’이란 펀드에 적립해 자사주를 구입하는 모든 자금을 운용한다. 각 직원은 60세가 넘어서야 자신의 몫을 찾아갈 수 있다. 옥토고넨 펀드가 계속 자사주를 구입하면서 이 펀드의 한텔스방켄은 10.3%의 지분율로 1대 주주에 올라 있다. 비결은 노사 신뢰와 안정된 지배 구조다.

김 팀장은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선을 긋는다. 또 해외는 신탁회사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퇴직금 형태로 운영되지만 한국은 조합 방식이란 특별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다르다”며 “법인세를 내는 기업만 63만 개인데, 이 중 우리사주가 3150개 정도 뿐이다. 신탁으로 가려면 제도의 효율성을 따져야 해서 규모가 아직 부족하고 시장의 여파도 적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결국 경영진·노동자 간 ‘신뢰’가 관건 = 유럽과 한국 간 우리사주조합 운영 방식의 차이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 국내 금융사의 경우 노동조합 자체도 교섭력이 약하다 보니 경영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입히려면 우리사주 지분을 통해 더 강한 교섭권을 가져야 했다. 김 팀장은 “전체적인 교섭권이 노조에 있다 보니 교섭력이 약해 복지 부문은 우리사주를 활용해 노조를 통해 얻어내려는 것이 있다”며 “금융사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 간 신뢰가 있어야 직원 복지와 재산 증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센터장은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합만 의지가 있거나 상호 오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경영진이 조합원 배려 차원에서 보상으로 우리사주를 대접하는 것이지만 조합과 경영진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협의가 되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객진산 기자 jinsan@

종신보험만 들어도 치매보장이 착!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건 사망보장만이 아닙니다
노인 10명 중 1명 꼴로 발생하는 치매까지
보험료 부담 없는 (무)교보실속있는치매종신보험(보충비용부과형)
하나로 안심하고 대비하세요

[보험료 부담 없이] : 일반형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저해지환급형 가입 시)
[치매도 걱정 없이] : 사망보장은 물론 중증치매 진단 시 간병에 부담이 없도록 보험금을 선지급합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중증치매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상품은 공시이율로 부리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교보생명에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통금)이나 사고보통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1903-33 상품지원팀(2019.03.18)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9-1050호(2019.03.26)

KYOB0
교보생명

“中, 미세먼지 책임 일부 인정…하반기 인공강우 실험”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의 30~50%(평균)를 중국발로 보고 있으며 중국도 일부 인정했다”면서 “하반기에 한·중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 서울역 근처 서울사무소에서 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기질 예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인공강우 실험도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이 정쟁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회서 조속히 처리해야 효과가 난다”며 “정치권에서 미세먼지 부분은 다른 정치문제와 달리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 우려가 있는 라돈에 대한 기준도 곧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이재창 국장대우 정치경제부장 leejc@

중국發 비중 30~50% 추정
미세먼지 근본 대책 3원칙
절대량·상시 감축·해외 관리

-국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근본 대책을 원한다.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절대량을 줄여가야 한다. 먼지를 덜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근본 정책이다. 두번째는 상시 저감이다. 고농도 때 국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비상저감이 필요하다. 그 다음이 해외발 미세먼지다. 상당한 양이 국외서 들어오는 만큼 대외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하다. 세 가지 대책 모두 중요하다.”

-국민은 중국 미세먼지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공식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를 쓰는데 한순간 82%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연평균 개념으로 30~50% 정도로 보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최소한 10년은 추적해야 하는데 아직까진 없는 상태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중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저감과 동시에 국외 저감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국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환경부는 중국 미세먼지 부분도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소소하게 알지 못하지만 환경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중국과 접촉하고 있다.”

-2월 한·중 장관회담, 3월 총리회담 후에 진전을 이룬 게 있다.

“2월에 직접 가서 중국 장관과 회담한 내용은 생각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이 많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실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협력하자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조기경보체제를 공유한다든지, 데이터를 공동 생산하기로 한 것, 전문가들 사이에 엑스포 개최 등 여러 가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합의한 것들이 많다. 올해 상반기 워크숍으로 구체화한 뒤 하반기에 실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조기경보 체계다. 올해 하반기 조기경보 체계를 운용해 내년에 실행할 방침이다.”

-중국이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인정한다. 장관 회담하면 인정한다. 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만 중국이 인정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계산 값과 차이는 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중국과 함께 줄이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정확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소스와 양이 밝혀져야 한다. 중국만이 연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연구해야 한다. 올 11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 보고서 나온다. 신뢰되는 공식적인 데이터도 나온다. 중간 연구 결과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측이 한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말해줬다는 점이다. 서해안 쪽에 공기 기압 때문에 가기도 한다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해석하더라.”

-한·중 공동 인공강우는 언제 가능한가.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중국과 논의한다. 하반기에 합의가 되면 실시하는 방법이라든가 위치가 나올 것이다. 중국은 인공강우 실험을 주로 내륙에서 해서 해상에서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한다. 이것은 한·중의 공동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할 것이다. 물론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아니다. 저감과 예방의 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

-기상청의 정확한 예보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의 조기경보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은 일주일 예보가 있다.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예보가 100% 정확하다. 따라서 중

중국 측과 수시로 의견 교환
하반기 한·중 조기경보 운용
정확한 중국 예보 공유 추진

국의 일주일 앞선 예보를 받으면 우리가 고농도를 일주일 동안 준비할 수 있다. 어떻게 정보 받고 운영하고 구체적으로 사업화할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

-북한 미세먼지 영향도 있다는데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대기학자 대부분은 국외발 미세먼지의 10% 정도를 북한발로 본다.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에서 실측했을 때도 9%로 나온 적이 있다. 정치권은 우리가 북한을 돕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데 아니다. 북한 쪽에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날아오는지, 북한 미세먼지에 중국발이 포함됐는지 등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측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비무장지대(DMZ) 인근 5개 측정소 설치 예산이 포함됐다.”

-대책을 세우려면 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현 정치 상황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추경은 당해 연도 소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 통과가 늦어지면 국민들이 준 예산을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쓸 수 없다. 정치권에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문제와 달리 봐주면 좋겠다.”

-오래된 경유차 25만 대를 추가 폐기하기로 했다. 내년에 친환경 저공해차 의무 판매제를 시작한다고 들었다.

“전국적으로 가장 큰 미세먼지 배출원은 사업장이다. 그중에서도 시멘트·발전·철강·석유정제 이 네 가지 부분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운송 부문이다. 주로 경유차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어 낸다. 사업장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경유차 감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부는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를 최소 60% 이상은 퇴출 내지는 친환경차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40% 중반까지 줄일 수 있다. 그때까지는 강도 높은 폐차, 저감장치 설치, LPG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 위한 경유세 조정 등 입체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차로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다. 내년 전국에서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경예산 통과되면 감축 효과 어느 정도 기대하나.

“그대로 집행하면 7000톤 감축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예산을 가지고 올해 1만 톤 줄이려고 했는데 7000톤이 추가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 비슷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본다. 내년이 중요하다. 내년에 여러 가지 환경 기준과 배출 기준도 강화되고 미세먼지 관련 대응 법안이 시행되는데 재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 정부 동안 35.8%를 줄이기로 돼 있는데 가장 많이 줄여야 하는 해가 내년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955년 경북 안동 출생 △단국대 지역개발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한국 도시연구소 소장 △환경정의 공동대표 △한국NGO학회 회장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올해 추경은 내년에 더 많이 줄이기 위한 기폭제로 본다.”

-탈원전 등 현 정부에서도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새정부 들어와서 두 차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35.8% 저감을 목표로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폐합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12월 클린디젤 정책 폐기다. 하지만 아직도 경유차나 경유와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 많은 등 미스매치된 부분이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늘 생각하고 있다. 그게 탈원전이든 탈석탄이든. 장기적 투자를 통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경제의 중심이 되고 환경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추경 빨리 국회 통과돼야 효과
다른 정치문제와 별개로 봐야
라돈 환경 기준도 조만간 마련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에 중점을 두니 경쟁적으로 태양광을 추진하면서 폐패널 등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육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면 안 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섬세한 제도를 만드는 게 숙제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같이 운영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법에서는 이른바 계획 입지제가 있다. 이제까지 입지를 정하고 영향을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영향을 평가해 입지를 정하도록 할 것이다. 조만간 나온다.”

-태양광 폐패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생산부터 폐기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처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이 별도의 기관이 될지 지자체가 될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 거점센터 만들어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최근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기준을 강화했지만 권고사항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과제 중 하나다. 라돈의 방출량을 얼마나,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가 문제다. 왜냐면 라돈이 아닌 다른 것이 방출된 경우도 있고 화강석에서 많이 나오는데 가까이 측정하면 고농도지만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측정이 안 된다. 정확한 발생량과 인체에 대한 피해, 어떻게 측정되는지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 근거가 불확실해 권고하고 있다. 연구작업을 통해 보다 견고한 기준을 만드려고 하고 있다. 머지않아 환경기준 나올 것이다.

정리=박은평 기자 pepe@

北, 비핵화 6자회담 모색… 문 대통령 “기다리겠다”

북, 중·러와 다자구도 추진
푸틴 “중·러 합의사항 이행을”
日 “우리도 적극 역할할 것”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기로

그동안 남북미가 주도해온 북한 비핵화 협상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전 6자 회담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러 정상회담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구상(로드맵)을 하고 있다”며 “이 로드맵의 첫 번째 부분은 상당 정도 이행됐으며, 두 번째 부분은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어떤 새로운 계획도 논의하지는 않았으며, 현 단계에서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다”며 “우리가 (러·중이) 합의한 것(로드맵)을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7년 7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단계적 해법을 담

은 로드맵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해 6자회담 형식의 다자 보장 체제를 주장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남북미 간 진행해 오던 비핵화 협상이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핵화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룰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은 데다 평가하기 양상으로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문 대통령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과거 6자회담에서 한국이 주변인으로 전락했었다.

특히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대남 비난을 하고 있는 것도 다자구도와 무관치 않다. 4·27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주장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이나 ‘중재자’ 역할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기로에 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새로운 길이기여, 또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총선 앞두고 역풍 불라… 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속도조절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관련 부처와 조율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기로 했다. 여전히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안을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후속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발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현재는 내년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현재의 판결은 국회의 낙태죄 폐지 입법 논의에 불을 붙였다. 며칠 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각 당 의원들이 공청회와 형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여전하다. 일부 여성계는 낙태죄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일부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향후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낙태 허용 시기와 진료거부권 인정, 의

사자격정지 1개월 규정 폐지 등 논란의 불씨가 적지 않다.

이에 당정은 법 개정의 ‘신속성’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불리 법안을 발의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당정은 우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조율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금 입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당정이 공감했다”며 “입법을 마냥 늦추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전 정지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입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평화의 길 함께 걸어요”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27일 일반인에게 처음 개방된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주말도 대치… 대대적 ‘맞고발전’

패스트트랙 24시간 비상대기
유승민 “사보임 원위치로 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 28일에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던 주중에 비해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기습회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양측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두 정당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거점으로 국회에서 비상대기했다. 당 관계자는 28일 “언제든 긴급 의원총회를 열 수 있도록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24시간 비상근무조를 꾸렸다. 총 10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는 정개특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관 4층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등을 막고 있다. 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확고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이 대거 참석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여권을 규탄하는 등 여론전도 펼쳤다.

양측은 대대적인 고발전으로 맞섰다. 국회 회의장을 막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한국당 의원 18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추가로 고발했다. 한국당도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의 민주당 의원이 한국당 인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주초에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어 상황 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다.

유승민 바미당 의원은 이날 긴급 회견에서 “순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며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마음이 합니까
H 현대해상

2019 한국인생의 비전(사명)
장기보장 부활 100주년 100

2019 글로벌 비전(사명)
장기보장 부활 100주년 100

우리는 모두
현대해상
어린이 보험 동기

어린이보험 고객만을 위한 전용 보상 서비스 운영
신생아 3명 중 1명이 가입하는 만큼 수 있는 보험

돈돈함이 다르기에
이미, 300만 부모들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을 선택했습니다

※ 2004.07~2018.04 신계약 기준 누적 계약체결 건수 3,043,656건
※ 2017년 통계청 출생 통계(357,700명) 대비 어린이보험 계약 가입건수(2017년 기준 137,228건)

누적고객 300만 대한민국 어린이를 돌보는 이름
굿안굿어린이종합보험

현대해상 하이클래너를 만나보세요 ☎ 1588-5656 / www.hi.co.kr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준에 도달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기결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급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상금에 기한지급금을 합하여 120일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고의사기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외의 민책사항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법 제 101조 제 2항 제 2호 (201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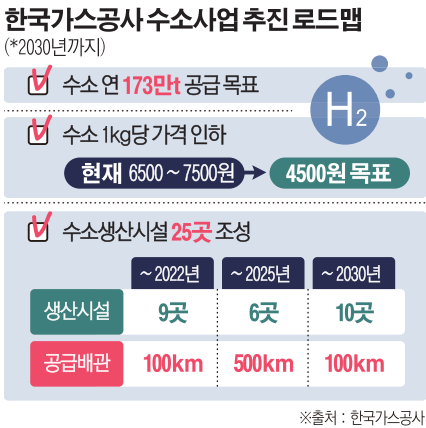
수소차 연료비 2030년 경유·전기차보다 싸진다

가스공 4.7조 투자... 생산 기지 25곳·공급망 700km 구축
전국에 충전소 110곳 확충... 일자리 5만개 창출 기대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 수소’ 제조 기술 확보 힘쓸 것”

한국가스공사가 수소산업 육성에 2030년까지 4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생산·유통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 산업에 대한 선제 투자를 통해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가스공사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민간에서 선뜻 수소산업에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소산업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마중물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기존 천연가스산업에 더해 수소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가스공사가 특히 공을 들이는 분야는 수소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이다.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이들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앞으로 10여 년간 전국에 수소 생산기지 25곳, 충전소 110곳을 설치하고 700km에 이르는



공급 배관망도 구축한다. 해외에서도 러시아, 호주 등에 수소 생산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수입·공급망을 갖출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인프라 구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현재 6500~7500원인 수소 공급 가격을 4000원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운전자가 100km 주행을 할 경우 수소는 8300원, 휘발유는 1만1600원, 경유는 8700원이 든다. 현재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수소 가격도 경유보다는 낮긴 하지만 2030년 수소 공급 가격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고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을 4500원으로 낮추면 수소충전소 수소 소매가격은 제세금·사업자 마진 등을 합쳐 6000원이 돼 경유는 물론 전기차(100km 주행 시 7100원)보다 저렴해진다.

기술 자립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가스공사가 짚은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그린 수소’ 제조 기술 확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조한 ‘그린 수소’는 화학 공정을 통해 제조한 ‘그레이 수소’보다 친환경적인 데

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높고 원료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이와 함께 3000억 원을 투자해 수소 관련 기자재 국산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관련 소재·부품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다.

가스공사는 로드맵 추진에 4조7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1조 원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3조

7000억 원은 정부 보조금이나 외부 투자, 차입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수소산업이 차세대 국가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가스공사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교통비 최대 30% 할인 ‘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부산·수원 등 11개 지자체
6월부터 시범사업 운영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 수원,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영주, 경남 양산 등 6개 기초자치단체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세종과 울산, 전주에서 이뤄진 시범사업 결과 편의성과 혜택이 늘어나 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할수록 최대 30%+α까지 교통비가 줄어든다. 또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도 쌓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각 지역별 2000명 내외, 전국적으로는 2만 명 이상의 체험단을 모집해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 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응모하면 참여

가능하다.

국토부는 6월 시범사업에 앞서 각 지역별 자치단체장, 체협단 및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후불 모바일 알뜰카드 및 보행 마일리지 시연행사와 체험단 발대식 등이 광화문 일대와 서울역에서 진행된다.

안철환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 후불교통카드 도입, 자동 적립기능 추가 등 편의성을 대폭 높였으며, 마일리지 적립액을 상향하여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며 “체험단 규모가 한정돼 있어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산업부 R&D 사업 ‘속도·일자리’ 중심 재편

도전적 과제는 별도 평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속도와 일자리 창출 효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사업을 재편한다. 산업계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에는 별도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규정 세 건을 개정·고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개정안에서 기술 개발의 속도를 촉진하기 위해 R&D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기술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R&D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중 이미 개발된 기술은 외부에서 도입하도록 해 R&D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R&D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

다. 인력 활용 계획을 신규 연구 기관 선정에 반영하고, 학생 연구원을 과제 종료 후 채용하는 기업엔 R&D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기업이 학생 연구원을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인건비도 추가로 보조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서 신설했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관한 규정도 들어갔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단기적 사업성보다는 난제 해결을 통해 혁신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둔 R&D 지원 제도다. 산업부는 이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알키미스트 사업은 성공·실패 등에 따른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니라 공개 발표 형식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운용도 일반 R&D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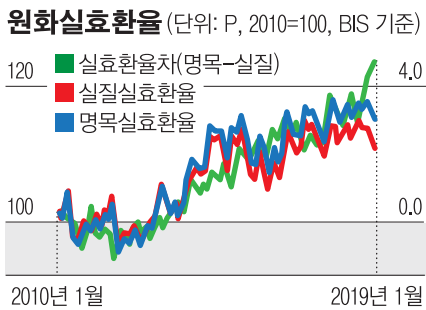
또 벌어진 원화 실효환율 실질·명목 격차

11년1개월 만에 최대
물가 0%대 오름세 반영

원화 실효환율 중 물가를 포함하지 않은 명목실효환율(NEER·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과 이를 감안한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 간 격차가 1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최근 국내 물가가 0%대 오름세에 그치며 주요 교역대상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다.

최근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실질실효환율은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하락률도 세계 60개국 중 8위에 올랐다.

2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3월 한국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전월 대비 0.97%(1.09포인트) 하락한 110.87(2010년 100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0월(110.52) 이후 가장 낮은 수



준이다. 하락률은 전 세계 60개국 가운데 일본(-1.01%, -0.76포인트, 74.58) 다음인 9위를 기록했다.

명목실효환율도 0.75%(0.87포인트) 내린 115.58을 보였다. 이 역시 지난해 7월(115.58) 이래 최저치다.

다만 명목보다 실질실효환율이 더 떨어지면서 격차는 4.7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이는 2008년 2월(5.49포인트) 이후 최대치다.

3월 기준 전년 동월비 소비자물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0.4% 상승해 3개월 연속

0%대 오름세에 그쳤다. 반면 한국과 교역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의 경우 2.3% 올랐고, 유로(1.4%)와 일본(0.5%)도 한국보다 높았다. 미국 역시 1.9% 상승을 기록했다.

실질실효환율도 미국은 0.69%(0.80포인트) 오른 116.07을, 유로는 0.52%(0.48포인트) 상승한 93.07을 각각 기록했다. 이들 국가는 각각 3월 상승률 7위와 10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0.05%(0.06포인트) 떨어진 124.45를 보였다.

실질실효환율(REER)이란 세계 60개국의 물가와 교역비중을 고려해 각국 통화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기준연도(2010년)보다 그 나라 화폐 가치가 고평가(원화 강세)됐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저평가(원화 약세)됐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수출 가격경쟁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명목실효환율(NEER)은 교역량만 가중 평균한 지표다.

김남현 자본 금융 전문가 kimnh21c@

오늘부터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무료

30여년 만에 폐지

지리산 국립공원 내 천은사 통행료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을 시작하는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1600원을 받지 않는다. 매표소는 철수한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후 탐방객들의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

하지 않는 탐방객의 통행세 징수를 멈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반면 천은사는 이를 단순한 통행세로 볼 것이 아니라 사찰 측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람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통행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탐방객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환경부, 전라남도 등 공공기관은 천은사 인근의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탐방기반시설 향상을 지원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짜릿한

LIFE IS
GOOD

- ☐ 똑같은 매일 매일
- ☒ 새로운 매일 매일

짜릿한 경험은
일상을 새롭게 바꾸니까

당신의 더 행복한 LIFE를 위해



美·日 밀월 속 밀당… 트럼프 “농업관세 철폐” 아베 압박

골프·만찬 등 친분 과시했지만
트럼프 “후순위 싫다” 불만표출
美·日 무역협상도 ‘협로’ 예고

1년 넘게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 이어 미국과 일본의 논의도 협로를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농업 관세의 조속한 철폐를 요구하며 협상 조기 타결을 강요했다고 2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샤가 신문이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26·27일 1박 2일간 열린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49세 생일을 축하하는 부부 동반 만찬과 골프 등을 함께하며 유대 관계를 과시했다.

그러나 무역협상에서는 팽팽하게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다른 나라에 밀려 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에게 농업 관세의 조속한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위가 되는 것은 싫다”며 “농업 관세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압박했다.

이런 발언은 미국 상품에 대한 일본의 관세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높은 것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부 합의가 나오는 것도 원했다. 미국과 일본이 15

~16일 개최한 장관급 무역회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라도 합의할 건수가 있는가”라고 묻는 트럼프의 의향이 전해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본은 그동안 (무역합의를 가로막는) 지연 행위를 해왔다”는 트럼프의 발언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일본의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농업 부문에서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총리가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지만 중국 경제 구조 문제를 놓고 아직 이견을 완전히 좁히진 못한 상태다. EU와는 무역협상을 아직 시작조차 않고 있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 시정을 공약으로 내걸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이 최대 과제인 가운데 무역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트럼프의 본심이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중순 회담에 앞서 트럼프가 무역 논의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침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입장에서 트럼프와의 우호

적인 관계는 북한 문제나 대중국 관계 등 주요 이슈를 풀어나가는 데 핵심이다. 이에 무역 문제로 트럼프와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는 것이 아베의 전략이었다.

이에 일본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장관급 협상을 계속해 트럼프를 납득시키려 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라이트하이저와 23일 전화로 협의하고 25일 워싱턴으로 건너가 “정상회담 여행연습을 하자”며 3시간가량 협의했다.

또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당시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기업의 최신 대미국 투자계획 목록을 나타낸 종이를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정권이 탄생한 이후 일본은 미국에 230억 달러(약 27조 원)를 투자해 4만 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각각 세계 제일”이라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중 일대일로 포럼 폐막… 640억 달러 계약 체결 중국 베이징 근교 휴양지 옌치후(雁栖湖)에서 27일(현지시간)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원탁회의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각국 정상들이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포럼은 시 주석과 37개국 정상이 이날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시 주석은 이번 포럼을 통해 640억 달러(약 74조30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르노-닛산 합병추진… 주도권 갈등 재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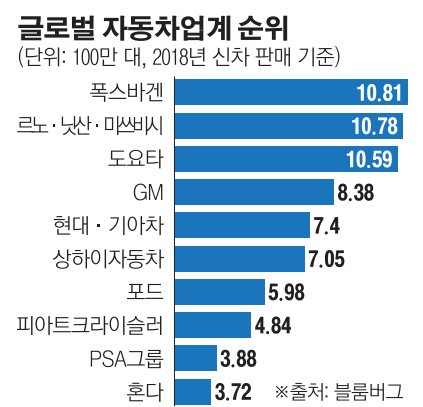
닛산 “르노 못믿어” 강한 반대
성사뻔 세계 2위 車업체 탄생

카를로스 곤 전 일본 닛산자동차 회장의 축출 이후 봉합됐던 프랑스 르노와 닛산의 긴장과 갈등이 다시 고조될 조짐이다. 르노가 최근 닛산과의 합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오랫동안 연합 파트너였던 르노와 닛산이 합병하면 단숨에 독일 폭스바겐에 이어 세계 2위 자동차업체로 부상하면서 폭스바겐과 르노·닛산, 일본 도요타 등 3강 체제가 구축된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닛산은 합병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르노의 시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파트너십이 무너질 위험도 있다.

1월 취임한 장 도미니크 세나르 르노 회장은 최근 닛산과의 합병안을 되살렸다. 르노와 닛산의 합병은 사실 곤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방안이었



으며 이에 대한 닛산 내부의 강한 반발로 결국 곤이 몰락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세나르 회장은 이달 초 닛산 측에 지주회사 구조를 통한 합병을 제안했다. 르노와 닛산 주주들이 50대 50으로 새로 탄생하는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 수도 동수로 하는 동등한 관계의 합병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최고경영자(CEO)는 르노의 제안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또 르노그룹이 최근 일본의 투자은행인 SMBC닛코증권에 지주사 체제 아래 르노와 닛산을 통합하는 계획의 세부 내용을 닛산 측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르노의 합병 요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압박이 커진 지금 자동차 업체들은 규모를 더 크게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닛산이 24일 울들어 두 번째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실적 악화가 가속화하는 것도 합병 등 개혁의 절박성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닛산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세나르 회장이 3월 닛산 본사를 방문했을 때 미래 동맹 구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표명했는데 르노 측이 다시 합병안을 들고 나왔다”며 “이에 최근 수주간 닛산에서 르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영국기업에 투자 준비완료” 버핏 ‘브렉시트 공포’ 일축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88·사진)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내일 당장이라도 영국에서 무언가 살 준비가 됐다”며 영국 투자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버핏이 영국에 큰 지지를 보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유 자산 880억 달러(약 102조 원)로, 세계 3대 부자인 워런 버핏은 영국 시스템을 믿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FT와의 인터뷰에서 “투자하는 곳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시스템을 신뢰하는 곳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며 “영국이 그런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브렉시트로 인한 우려를 일축하며 영국에 더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사실 버핏에게 영국 투자는 아픈 경험이기도 하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영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에 투자해 약 7500억 원을 날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버핏은 자신의 투자 실패에 대



해 ‘엄청난 실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내일 당장이라도 투자할 만큼 영국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버크셔해서웨이가 투자한 북잉글랜드 전력 공급사 노던 파워그리드는 연 10억 달러 매출과 3억 달러 순이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버핏의 이날 발언은 미국에 초점을 맞춘 54년 투자 경력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버핏은 그동안 사모펀드 경쟁이 치열해진 미국에서 10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인수·합병(M&A)이 발생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런 이유로 올해 투자자들에게 “국경 너머 투자를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 이외 해외 투자에 대한 강한 의욕을 밝혔다.

김서영 기자 0jung2@

애플 ‘잡스맨’ 떠난다 성공신화 핵심멤버 줄줄이 퇴사

애플 성공 신화의 주역인 디자인 팀에 세대 교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애플의 미학을 정립하고 아이폰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 개발을 주도한 디자인 팀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애플 디자인 팀의 리코 조켄도르퍼와 다니엘레 데 우리스 두 사람이 최근 퇴사를 결정했다. 둘의 경력을 합하면 총 35년이다. 이들뿐 아니라 10년간 애플에 몸담았던 줄리안 헛타히도 수개월 안에 회사를 떠날 계획이다.

조켄도르퍼는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회사를 떠난다”며 “애플의 디자인 팀에서 일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 우리스와 해닛하는 언급을 피했다.

이들 세 사람은 2000년대에 애플을 부활시키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의 대표 제품 개발에 참여한 디자

인 팀 핵심 멤버들이다.

WSJ는 이들의 퇴사가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끊어진 가운데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 판매가 둔화하는 가운데 사업의 핵심을 하드웨어에서 콘텐츠 서비스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다. 실제로 애플은 올해 새로운 기기보다는 새로운 정액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올 3월 이벤트에서는 TV 서비스 업체 로의 변신을 선언하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 1위인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던졌다.

WSJ는 조너선 아이브가 1년여 전부터 다시 산업 디자인 팀을 지휘하기 시작한 것이 물갈이의 배경이라고 봤다. 아이브는 고 스티브 잡스 애플 공동 설립자가 생전에 매우 아꼈던 인물이다.

애플 전문 분석 사이트 어바브아발론의 닐 사이버트 운영자는 “팀 구성 변화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맥 컴퓨터나 아이폰 디자인에서부터 증강현실(AR)과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애플·아마존도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대항마’ 될까

동영상 스트리밍 춘추전국

스트리밍 전성시대다. 1998년 고작 30명의 직원을 데리고 세계 최초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가 2007년 동영상 스트리밍 시대를 연 이후 최근 몇 년 전까지 감히 도전장을 던지는 기업은 없었다. 전통 미디어 업계와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르고, IT 업계는 애플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디바이스 혁신에 취해 콘텐츠 사업은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하드웨어 시장이 혁신 가뭄에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기존 IT 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모색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 됐다. 이에 콘텐츠 사업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넷플릭스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기업들로서는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애플은 3월 25일 할리우드 스타들을 대거 동원해 ‘빅 쇼’를 열었다. 이미 기존 강자들이 존재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 진출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아마존닷컴의 ‘프라임비디오’, 훌루, ESPN 플러스, AT&T 산하 워너미디어, 월트디즈니, 케이블TV 업체 컴캐스트 산하 NBC

IT업계 하드웨어 시장 포화에 콘텐츠 사업 출사표 잇따라

애플·아마존, 독점 콘텐츠 제작 디즈니·컴캐스트도 곧 서비스

“자금력이 결국 성공의 열쇠”

유니버설, 그리고 넷플릭스. 이들 사이에서 과연 애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파이 하나를 여럿이 쪼개 나눠 먹어야 하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략도 제각각이다. 넷플릭스는 최근 미국에서 네 번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훌루는 TV 프로그램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는 대신 기본료는 인하했다. 아마존과 애플은 독자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디즈니는 연내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디즈니와 폭스의 콘텐츠 사업 인수를 놓고 경쟁하다 패한 컴캐스트는 2020년 예정인 광고형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반격을 꾀한다.

유료 TV를 해지한 소비자는 기존의 케이블 이용료로 여러 개의 동영상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다. 케이블, S&P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평균적인 소비자는 동영상 이용료로 월 90달러 이상, 여기에 고속 인터넷 접속료 57달러를 지불하고 있



다. 소비자가 케이블TV를 해지해 90달러를 절약하게 되면,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월 8.99달러), 넷플릭스(13달러), 훌루+라이브TV(44.99달러) 등을 이용해도 추가로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마지드리서치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한 달에 총 38달러를 내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음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6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4분기 시점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

가 가입자 수는 5850만 명. 2위는 디즈니 산하에 들어간 훌루로 2520만 명이다.

마지드의 디지털 분석·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인 앤드루 헤어는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소비자는 1~2개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추가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소비자가 낼 수 있는 금액은 조만간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튜 공 미디어 기술 전문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프라임비디오와 애플의 TV플러스는 확실한 강점에 의해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경우, 애플TV 애플리케이션은 수백만 대의 아이폰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

다. 공 애널리스트는 “애플과 아마존은 스트리밍에 자금을 쏟아부어 계속 주력하면 성공은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가 올해 초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기하기로 한 건 현명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WSJ는 스트리밍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백기를 든 기업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후 승자가 되더라도 승리감에 취해 있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도입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치가 하락하면 콘텐츠 제공자의 가격 결정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넷플릭스 견제 나선 미디어 업체들

“프렌즈·그레이 아나토미 등 인기 드라마 판권료 더 달라”

자체 제작 오리지널 작품보다 명작 드라마가 시청시간 길어 워너 등 콘텐츠 사용료 인상 작품 제공 중단 땀 타격 클 듯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기묘한 이야기’.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 정글에서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

현재 넷플릭스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무적에 가까운 존재다. 방대한 가입자 수와 엄청난 자금력에 힘입어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할리우드 라이벌들의 위협이 거세지면서 시청률이 높은 동영상 스트리밍 콘텐츠 일부의 잃거나 혹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거액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미국에서 넷플릭스 시청 시간 상위 10개 작품 중 이전 작품이 8개를 차지했다. 그중에는 NBC유니버설의 ‘팍스 앤 레크리에이션’, 워너미디어의 ‘프렌즈’, 디즈니의 ‘그레이 아나토미’ 등 인기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넷플릭스는 라이브러리 작품 일부를 잃는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의 오리지널 작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타사 콘텐츠를 라이브러리에서 제거하거나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넷플릭스의 다음 도약에 장애

물이 만만치 않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자기 부담으로 히트작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기 프로그램의 독점 납품 계약이라는 넷플릭스의 방침을 굽히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올해도 ‘프렌즈’ 스트리밍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 워너미디어에 1억 달러를 지불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것은 기존의 3배에 이르는 액수다. 여기서 워너미디어가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 작품을 단독으로 스트리밍하거나 넷플릭스와 공유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작품이 이용자 유인이 되고 있다고 보지만 시청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닐슨에 따르면 오리지널의 인기 작품은 새로운 편을 제공하면 시청 시간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지만, 명작 드라마 쪽이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다.

결국, 미디어 업체들이 넷플릭스 쪽에 작품 제공을 중단하면 넷플릭스가 입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세상에, 가벼운 치매는 없습니다

가벼운 증상의 치매라도 가족의 마음은 무겁기에 경증치매도 중증치매도 모두 꼼꼼하게 보장합니다.

무배당 NH치매중풍보험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

- 75세까지도 가입가능, 100세까지 보장**
*100세만기 가입 시
- 업계최초로 통풍, 대장포진, 대장포진농병 진단비 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최초 1회만)
- 경증치매부터 진단비 보장**
*진단 확정 시(최초 1회만)
*임상치매평가(CDR)척도 진단 시, 1점 이상 경증치매, 3점 이상 중증치매
- 뇌 관련 질환까지 보장**
*알츠하이머, 파킨슨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보장(1년 1만 원, 50% 지급)
*해당특약 가입 시(최초 1회만)

※임상치매평가(CDR)척도란?

치매전문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임상치매평가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도를 의미(0~5점)

보험에 마음을 더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

www.nhfire.co.kr
1644-9000

다양한 농업·농촌 사업과 고객 서비스로
**우리 농업을 살리고
국민 행복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금융당국, ‘유사암 보험’ 과도한 중복 가입 막는다

손보사, 담보 코드 신설 요청
진단비 누적 한도 기준 마련 추진
사실상 금융당국 압박 후속 조치

금감원 “업계 상품 자율성 존중”
신용정보원 “코드 타당성 검토”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열경쟁 지적을 받은 경증치매에 이어 ‘유사암’도 과도한 중복 가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유사암 진단비 업계 누적 가입 한도액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에 “유사암 진단비도 업계 누적 한도가 필요하다”며 유사암

유사암보험 현황	
보장내역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진단비	기존 일반암 대비 10~20% 수준
현황	2월~ : 2000만~3000만 원으로 급등 4월~ : 금융당국, 이달 초 상품자료 요청 손해보험사, 가입한도 신설 추진
문제점	향후 보험금 지급 때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

코드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용정보원에 해당 담보 코드가 있어야만 업계 누적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업계는 누적 한도 조회를 토대로 한도액을 신설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증치매에 이

어 유사암 보험 경쟁도 심화되며 업계 합산 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기존에는 유사암 진단비는 합산 한도 조회가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사암은 갑상샘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으로 발병률이 매우 높지만 치료비는 비교적 적게 드는 암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갑상샘암 등을 유사암으로 분류해 최근까지도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해 왔다. 가령 일반암 보장금액이 2000만 원이면 유사암은 일반암의 10~20%인 200만~400만 원 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올 초부터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끌어올려 판매 경쟁을 주도했다. 앞서 경증치매가 금융당국의 제동이 걸리자 유사암보험 시장으로 경쟁이 옮겨붙은 형국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초 보험사들에 암보험 상품자료를 요구했다. 경증치매보험과 같은 리스크가 없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최근

유사암 진단비를 상향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의 상품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상품 구조상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합산 한도 신설도 사실상 금융당국 압박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유사암 가입자 인수를 심사할 때 신용정보원을 통해 기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가입 한도액을 넘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손보사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코드 신설 여부가 타당한지 따져보고 있다”며 “다만 생명보험 업계 의견도 종합해 논의하고, 유사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우리금융그룹은 19일 손태승 회장(앞줄 가운데)과 그룹 전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자금세탁방지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우리銀,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110명 증원

내부통제 3중 확인체계 도입

우리은행은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인 자금세탁방지부

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부서장을 본부장급으로 선임한다.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현재 36명에서 110여 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준법감시인 산하 조직인 준법지원부도 준법감시실로 격상하고 인원을 확충해 준법 감시와 점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자문을 통해 선진 금융

회사의 내부통제 3중 확인체계를 도입한다.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에 고객 알기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하고 확대된 자금세탁방지센터의 조직과 전문인력을 통해 2차로 확인하며, 감사실의 독립적인 감사인력을 증원해 3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선진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춘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금융研 “외환시장 안정화 위해 구두개입 적극 활용 필요성”

최근 환율 급등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8일 김남중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외환시장 구두 개입 추이 및 특징’ 보고서에서 “실개입은 비용과 개입 실패 시 부담이 큰 편이므로 구두 개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외환시장 실개입 내역 공개 방침에 따라 향후 외환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구두 개입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외환당국의 실개입 내역 공개 방침도 구두 개입 필요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개입 내역 공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개입 운용을 일정 부분 제약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정용욱 기자 dragon@

웰컴디지털뱅크 출시 1년… 수신 잔고 1兆 유지

웰컴저축은행은 28일 자사 모바일 앱 ‘웰컴디지털뱅크(웰뱅)’가 출시 1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날 웰뱅 출시 1주년을 맞아 관련 성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웰컴저축은행 수신 잔고 2조4000억 원 가운데 1조 원 이상을 웰뱅으로 유지했다. 앱 사용 확대로 상품 구성도 바뀌었다. 기존 정기예금 상품 구성 위주에서 정기적금과 입출금 전용 보통예금 상품 비중이 늘었다. 자동이체 등록도 웰뱅 출시 이전보다 39% 이상 증가했다.

지난 1년간 앱 다운로드 55만 건 이상을 기록했고 실사용자 수는 40만 명가량으로 집계됐다. 웰뱅 이용 고객 84%는 2040 세대로 기존 저축은행 이용 고객층이 50대 이상임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또 회사 영업점이 없는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제주 지방 고객도 전체의 20%에 달했다.

웰뱅 이용이 확대되면서 기존 고객의 대출상품 이용도 늘었다. 대출 신청시 수신거래 활동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금리 우대 요



사진제공 웰컴저축은행

인으로 작용해 증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고객이 늘었다. 회사는 또 웰뱅 출시 이후 무료 출금·송금 서비스로 고객들이 약 22억 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대웅 대표이사는 “웰뱅이라는 새 채널로 고객을 모집해 독자적인 디지털 뱅킹 운영 노하우를 익혔다”며 “앞으로 스타트업과 협업을 다양한 서비스를 웰뱅에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다음 달 개인 최적화와 구성을 변경한 ‘웰뱅 2.0’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4대 시중銀, 순익 줄었지만... 이자장사로 5.6兆 벌었다

1분기 순익 12% 감소 불구
예대 금리차 확대 지속 등
이자수익은 6%가량 증가

올해 1분기 4대 시중은행은 당기순이익 감소에도 이자수익은 전년 대비 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1분기 영업실적 공시에 따르면, 총 당기순이익은 2조22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총 당기순이익 2조5193억 원보다 11.7% 줄어든 수치다. 신한은행은 순이익 6182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3% 순이익이 늘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전년 동기보다 17% 줄어든 5728억 원을 기록했다. 우리·KEB하나은행 역시 각각 같은 기간 2.75%와 24.12% 줄어든 5782억 원과 4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4대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은 6% 늘어났다. 올해 1분기 4대 은행의 이자수익은 5조6228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1조5524억 원의 이자수익을 거뒀고 이어 신한은행 1조4237억 원, 하나은행 1조3386억 원, 우리은행 1조3081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은 신한은행이 6.6%, 국민은행 5.9%,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1분기 실적
(단위: 억 원)

	당기순이익	이자수익	비이자수익
신한	6182	1조4237	2207
KB국민	5728	1조5524	2484
우리	5782	1조3081	2566
KEB하나	4811	1조3386	2704

※ 출처: 각 사

우리은행 5.8%, 하나은행 5.4% 순으로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계대출 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인 예대 금리차 확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이자이익은 지난해 1분기보다 3.7% 증가한 9961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한 2704억 원이었고, 국민은행은 9.3% 증가한 2484억 원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7.5%, 5.9% 감소한 2207억 원과 2566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의 이자수익 고공행진은 오래 가지 못할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 여파로 추가 금리 인상은 당분간 어렵다. 미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해 예대금리 차이 추가 확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각 은행은 여신확대를 통한 성장보다는 자본 건전성과 수익성 강화를 예고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작년 보험사 해외점포 275억 흑자

영업실적 개선·투자이익 증가
전년比 순익 4460만 달러 늘어

지난해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2370만 달러(약 275억 원)의 순이익을 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해외점포 순이익은 23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60만 달러 증가해 흑자 전환했다. 보험영업 실적이 개선되고, 투자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보면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의 순이익이 늘었다. 미국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적자 폭은 전년 대비 480만 달러 축소됐다.

같은 기간 해외점포 총자산은 45억 8900만 달러로 해외진출 보험사 총자산의 0.7% 수준으로 집계됐다.

총자산은 작년 12월 영국 현지법인을 청산한 삼성생명 영향과 보험금 지급 등으로 전년 말(48억 2700만 달러) 대비 2억 3800만 달러(4.9%)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아시아 신흥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보험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개교 114주년
1905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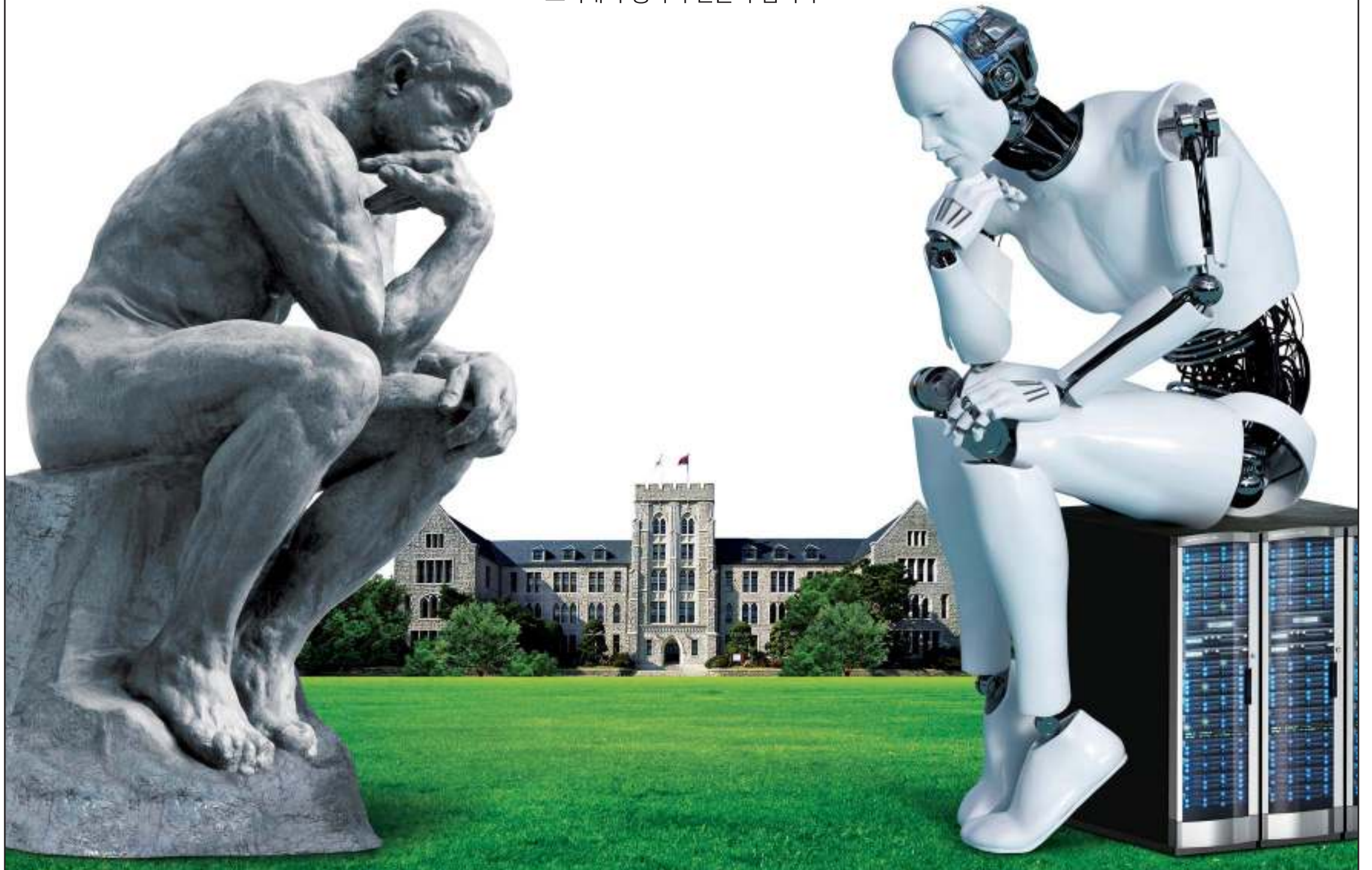
그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혁신

고대의

생각으로부터!

시대를 앞선 고민은 언제나 고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통과 미래는 왜 공존할 수 없는가?
우리의 성과를 왜 지구 반대편의 소외된 이들과 나눌 수 없는가?

미래가 불확실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그 어떤 경계도 없고
그 누구도 실현하지 못했던 과감한 혁신의 역사!
고려대의 생각이 만들어 갑니다



모두의 축제,
고려대로
초대합니다

개교 114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 2019년 5월 5일 (일)
- 기념식 : 인촌기념관 10:30
- 교우, 지역주민들과의 한마당 축제 : 중앙광장 10:00~17:00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구형보다 싼 신형...불황 속 가격정책 '안·못·내'

〈안 올리고·못 올리고·내리고〉

LG G8, G7보다 출고가 낮춰
갤S10은 저렴한 '에센셜' 출고
한국지엠 주요 차종 일제 인하
소비재 물론 B2B 업체도 비슷
포스코 원가 상승분 반영 못해

‘안 올리고, 못 올리고, 내리고’.

최근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가격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비싸게 팔아야 많이 남지만, 가격 저항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탓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 제품군을 늘리고, 기존 프리미엄 제품 역시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자동차 업계 역시 차 가격을 낮추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불황 속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방어적 가격 정책을 펴고 있다. 29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하는 삼성 ‘갤럭시 A30’은 가격이 34만98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프리미엄 제품에 사용되는 폴스크린 인



피니티-U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LG 전자도 2월 50만 원대의 ‘LG Q9’을 LG유플러스 전용으로 출시했다.

초고가 라인업을 제외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역시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S10의 경우 총 4종류로 출시됐다. 이들 모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기종은 갤럭시S10e다. 갤럭시S10e의 e는 essential(에센셜·필수적인)의 약자다. 기본형 갤럭시

시10 디자인은 유지하되 핵심 부품을 고급에서 고급으로 낮추며 80만 원대에 가격을 책정했다. LG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G8 씽큐’ 역시 출고가는 89만7600원이다. 전작 ‘G7 씽큐’보다 1100원 낮췄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잘 안 팔리는 차의 가격을 낮춰서라도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고가 차고 넘치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가동률이 떨어지면 고정

비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GM)이 올해 들어 주요 차종의 판매가격을 일제히 인하한 것도, 르노삼성이 판매가 부진한 SM7 가격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다.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현대차 ‘팔리세이드’는 신차이지만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라이프사이클이 끝나가는 경우, 연식 변경을 내놓으면서 가격인상을 최소화

하거나 동결하기도 한다. 지난달 선보인 기아차 K5는 이전에 100만 원 안팎이었던 운전보조 시스템을 기본항목으로 변경하고도 가격 인상은 50만 원 안팎에 머물렀다. 1월에 출시한 2020년형 쏠렌토 역시 기본모델에 옵션을 강화하면서도 가격 인상은 최소한으로 책정했다.

철강 업계는 원가 상승에도 제품가를 못 올려서 근심이다. 업체들과 가격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며 가격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포스코 관계자는 “원가가 오른다고 해도 이것을 판매가에 반영하기는 모든 품목이 쉽지 않다”며 “구매력이 있는 조선업 같은 경우 더 그렇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역시 “원가 상승분을 공급가격에 반영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하고도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김준형 기자 junior@

안경무 기자 noglasses@

삼성전기,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 착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삼성전자에 매각 계획

무선 사업, 5G 부품 위주 재편

이운태(사진) 삼성전기 사장이 4년 만에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칼을 꺼내 들었다. 잘되는 사업은 강화하고, 정체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전략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다음 달 중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PLP 사업을 삼성전자에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30일 열리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측 모두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삼성전기의 사업 재편 움직임을 보면 인수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삼성전기는 19일 모바일 무선전력전송 관련 사업을 켈트로닉스의 종속회사인 위츠에 양도했다. 삼성전기는 이번 매각을 통해 무선통신 사업 분야를 5G 이동통신 부품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다. 경영 효율



화를 통해 주력 사업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이운태 사장은 3월 주주총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5세대(5G) 이동통신 등 기술의 변곡점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삼성전기는 고부가 중심 사업 강화, 성장분야의 신제품 확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성장 기반 마련 등을 실천하겠다”고 올해 사업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모바일 무선전력전송 사업에 이어 삼성전기가 매각을 추진하는 PLP는 반도체와 메인 보드를 연결하는 인쇄회로기판 없이 반도체를 완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다. PLP 기술을 적용하면 전자기기 두께가 얇아져 다른 기능을 넣거나 배터리 크기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5년 취임한 이운태 사장은 이듬해

PLP사업팀을 꾸리고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해 왔다. 2년간 PLP 사업 투자액만 5000억~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4분기 PLP 사업이 포함된 기관 솔루션 부문은 약 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PLP 사업에서 약 1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볼 것이라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 여력이 충분한 삼성전자에서 사업을 맡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테스트엔시스템 패키지(TSP) 총괄을 신설하는 등 패키지 공정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이운태 사장은 2015년 취임과 동시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와 모터, 전자기기표시기(ESL), 전원 모듈 등 전망이 밝지 않은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사장 취임 후 첫 행보였는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 LED 시네마 ‘오닉스’ 영토 확장



말레이·미국 등 33개 영화관 설치
영화산업 박람회 ‘시네마콘’ 진출

삼성전자가 시네마 LED 브랜드 ‘오닉스’ 공급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미국, 인도 등에 위치한 33개 영화관에 오닉스를 설치했고, 추가 공급을 위해 다른 영화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28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말레이시아 사일람의 센트럴 아이 시티 쇼핑몰에 위치한 영화관 TGV에 오닉스를 설치했다.

오닉스는 영사기로 흰 막에 빛을 비춰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대신, LED(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스크린이다. 스스로 빛을 내는 LED 물질 특성으로 인해 오닉스는 영사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의 밝기를 구현한다. 렌즈를 이용해 스크린 전체를 포커싱하는 만큼 초점을 맞추기 힘든 영사기의 단점을 보완하기도 했다.

TGV에는 기존 오닉스보다 가로가 1.4배 큰 14m(미터)의 스크린이 도입됐다. 관람객들에게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해 하만의 JBL 오디오 시스템 또한 갖

춰져 있다. 이외에도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리클라이닝 체어 등 영화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제공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의 또 다른 유명 영화관 브랜드인 GSC의 일부 극장에 오닉스를 공급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주요 영화관에 오닉스를 도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영화산업 박람회 ‘시네마콘 2019’에서는 텍사스의 ‘스타 시네마그릴’ △메릴랜드의 ‘웨어하우스 시네마’ 등 영화관 2곳에 설치할 오닉스 스크린을 공개했다.

또 26일에는 인도 벵갈루루의 스와가트 극장에도 가로 14m 크기의 오닉스를 설치했다. 삼성전자 오닉스는 현재 16개국 33개 극장에 공급됐다.

삼성전자는 오닉스를 통해 사이니지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지킨다는 계획이다.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8년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25.8%의 점유율을 기록, 1위에 올랐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김조원 KAI 사장, 중남미서 전투기 세일즈

방산 전시회 ‘FAMEX’ 참가
KT-1·FA-50·수리온 소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 산타루치아 공군기지에서 열린 ‘FAMEX 2019’에 참가해 중남미 시장에 나섰다.

올해로 3회를 맞은 ‘FAMEX 2019’는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34개국 505개 업체가 참가한 항공·보안 방산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서 KAI는 KT-1 기본 훈련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기동헬기와 위성을 선보였다.

김조원 KAI 사장은 전시회에서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잠재 고객

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며 세일즈 경영 활동에 나섰다. 특히 F-5 전투기 교체 소요가 있는 멕시코의 국방위원장을 만나 FA-50의 장점을 소개했다. 이에 펠릭스 살가도 국방위원장은 FA-50에 관심을 보이며, KAI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페루 공군사령관은 자국의 KT-1을 인근 6개국에 시승용으로 활용하는 등 중남미 지역 공동 마케팅을 제안했다. 이에 김 사장은 KT-1의 중남미 시장 개척에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르헨티나 공군 조달국장은 FA-50은 자국 노후 전투기 교체 사업에 유력한 후보이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KAI와 아르헨티나의 적극적인 항공산업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수리온 헬기와 위성 수출 활동도



멕시코 FAMEX 전시회에서 FA-50을 설명하고 있는 김조원(오른쪽) KAI 사장. 사진제공 KAI

활발히 펼쳐졌다. 콜롬비아 공군 군수송항공사령관은 수리온의 다목적 운용능력과 파생형 헬기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또 멕시코 항공국과 우주개발센터에 KAI의 우주기술 역량과 위성 제품군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 방안과 수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대한항공 연중 ‘노타이 근무’ 실시

대한항공이 5월 1일부터 연중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노 타이(No Tie) 근무를 실시한다. 이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2008년부터 하계 시즌 노타이 근무를 시행, 올해부터는 자유롭게 패

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노타이 근무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노 타이 근무 대상은 국내외 전 남자 임직원이다. 운항 및 객실 승무원과 접객 서비스 직원 등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직원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해외지점은 각 지역의 기후 특성에 맞춰 노타이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기아차 SUV 잘 팔리니… 부품 계열사도 미소

현대모비스 영업익 10% 늘어
현대위아도 흑자 전환 성공

현대차와 기아차가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양사의 신차 효과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등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28일 올해 1분기 매출액 8조7378억 원, 영업이익 493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대형 SUV를 중심으로 한 신차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가 늘어난 것이 모듈과 핵심부품 분야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모비스 실적도 개선됐다. 현대모비스의 사업은 크게 모듈 및 부품제조 사업과 AS용 부품사업으로 나뉜다. 부품제조 사업의 경우 현대·기아차로의 매출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모

비스의 1분기 전동화 부품 매출은 574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3036억 원)보다 89% 급증한 수치다.

또한 현대모비스의 경우 고사양 멀티미디어 제품과 전장 분야를 포함한 핵심 부품 판매도 증가했다. 1분기 핵심 부품 분야 매출은 1조88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늘었다.

자동차 부품사업과 공작기계 사업 등을 영위하는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현대위아는 지난해 12월 전지식 4륜구동(AWD) 통합 제어 부품인 ‘전지식 커플링’을 개발·양산해 국내 대형 SUV 열풍의 중심인 팰리세이드에 장착했다. 이에 이 회사는 1분기 매출액 1조8494억 원, 영업이익 146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영업손실 298억 원) 대비 흑자전환했다. 부품 판매의 전반적인 증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엔진과 4WD(사륜구동 방식) 부품, 등속조인트 등 핵심부품 공급량이 늘어났고, 특히 SUV 판매가 늘어나며 당사의 4WD 부품 판매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SK 디스커버리, 지배구조 단순화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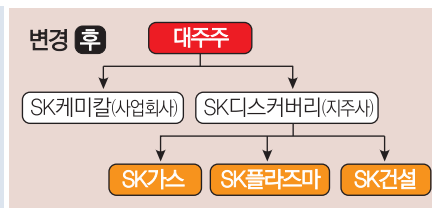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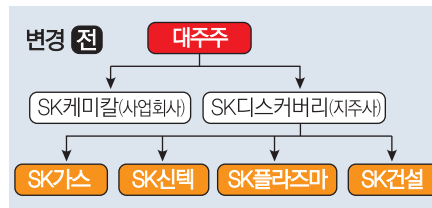
100% 자회사 SK신텍 흡수합병
SK건설 모회사 결정 빨라질 듯

SK그룹 중간지주사 격인 SK디스커버리가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에 착수했다. 경영 효율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자회사인 SK신텍을 흡수 합병하기로 한 것. 특히 2017년 말 지주사로 출범한 이후 SK디스커버리가 다시 지배구조 변경을 시작하면서 SK와 SK디스커버리 사이에서 거취를 주목받아 온 SK건설 역시 제자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SK디스커버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100% 자회사 SK신텍을 7월 1일자로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SK신텍은 섬유 관련 자회사 투자 및 경영컨설팅을 하는 자회사로, 합병 비율은 1대 0이다.

SK디스커버리 관계자는 “SK신텍이 섬유 등 전반적인 사업을 조율하는 회사로 지주사 출범 이후 별도로 역할을 두기보다는 합병을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 외에도 합병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다. SK신텍은 SK디스커버리의 또 다른 자회

SK디스커버리 지배구조 변화



사 SK가스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어 지주사의 자회사 간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SK디스커버리가 지주사로 출범한 이후 2년 내 해소해야 할 문제인 만큼 합병을 통해 이를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케미칼은 설립 48주년 만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SK디스커버리(존속회사), SK케미칼(사업회사)로 분할해 각각 자회사 관리와 화학, 제약 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주사 출범 이후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는 SK가스, SK신텍, SK플라즈마, SK건설 등 4개였지만 SK신텍이 제외되며 3개 자회사 체제로 변하게 됐다.

SK디스커버리가 SK신텍을 흡수 합병하며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또 다른 지배구조상 문제인 SK건설의 거취도 이른 시일 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SK건설

은 SK그룹의 지주사인 SK㈜와 별도 지주회사로 출범한 SK디스커버리 중 한 곳을 모회사로 선택해야 한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SK건설은 최대주주가 SK㈜(지분율 44.48%)로, 2대 주주는 SK디스커버리(28.25%)다.

결국 새로운 지주사 출범 이후 위법 행위 발생의 유예기간인 2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SK디스커버리는 12월까지 SK건설 지분을 처분하거나 SK건설을 단독으로 계열사로 추가 취득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말 정기 임원인사에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의 측근인 안재현 SK건설 사장이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SK디스커버리의 SK건설 지분 추가 취득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황창규 KT 회장 “글로벌 5G 1등 이룬다”

임원 워크숍서 신뢰 회복 강조
안전 전담부서 신설 등
아연화재 재발 방지책 내놓아

“기본에 충실한 신뢰 회복으로 ‘글로벌 5G 1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국민 신뢰를 다시 얻게 되면 ‘국민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일도 어렵지 않다.”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최고 수준의 5G 서비스를 위해 KT는 물론 KT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뛰자고 당부했다. 또한 아연 화재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그룹 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아연 화재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완벽한 통신 서비스 제공과 함께 세계 최



고 5G 서비스를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황 회장은 아연 화재의 원인으로 관행과 타성을 지적하고, 완벽한 통신 네트워크를 위해 유지보수, 관리 프로세스, 조직 등을 근본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자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아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 관련 안전 유지, 시설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총괄하는 안전 전담부서(Control Center)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KT의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황 회장은 “세계가 ‘KT 5G’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KT의 5G 모델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공식 의견서로 채택돼 193개 회원국에서 열람 중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재생에너지 3020

소중한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지역난방사업
지역냉방사업
전력사업
구역전기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eco energy
for everyone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SK가스 임직원 심폐소생술 전문가로 거듭

사회적 가치 제고 위해 교육 이수

SK가스 임직원이 심폐소생 응급구조 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난다.

28일 SK가스에 따르면 임직원 20명은 26일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이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기 등 첫 교육을 4시간 동안 받았다. 이 교육에는 인공호흡실습, 자동심장제동기(AED) 사용실습 등이 포함돼 실제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구조를 진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SK가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심폐소생술 전문가가 되겠다고 나선 계기는 최근 실시된 ‘LPG자동차 사용제한 폐지’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화와 정부는 37년 만에 LPG 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폐지했고, 현재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SK가스 구성원들은 소비자 관심에 보답하는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선택했다.

심폐소생 교육은 해외근무 구성원들의 관심도 높다. 내달 초 싱가포르에서 진행하는 SK가스 자회사 SK가스인터내셔널 직원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SK에너지 등 현지 SK그룹 계열사 6곳의 직원 80여명도 참여할 예정이다.

SK가스는 직원 휴게실에 인공호흡 연습할 수 있는 마네킹과 자동심장제동기 등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향후 SK가스 충전소 직원들과 탱크로리 기사 등으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 갑작스러운 심정지 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SK가스 관계자는 “심정지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혀야 한다”며 “SK가스가 이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완구업계 ‘어린이날 특수’ 실종

완구업계 최대 특수기간인 어린이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업계가 조용하다. 뚜렷한 히트 상품이 안 보인다는 점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28일 완구업계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날 특수를 둘러싼 기대감은 예년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한국완구협회회장은 “5월은 어린이날 특수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 기준 평당보다 매출이 50%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매장 분위기가 싸하다”며 재고 준비나 마케팅 준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라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의 말처럼 올해 완구 시장에서는 뚜렷한 히트상품을 꼽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5~2017년에는 터닝메카드가, 2017~2018년에는 베이블레이드가 업계를 이끄는 히트상품으로 꼽혔다. 올해도 아직은 베이블레이드의 인기가 높지만, 지난해만큼은 아니라는 평가다.

터닝메카드의 새로운 시리즈 빠사메카드도 어린이날 특수를 잡기에는 시점이 애매해 보인다. 제품은 지난달 출시됐지만,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의 빠사메

카드 애니메이션이 아직 5회까지밖에 방영되지 않은 탓이다. 총 78부작인 빠사메카드는 지난달 25일부터 MBC에서 방영되고 있다.

‘바비 60주년’도 어린이날 대목을 건인할 흥행 요소로 꼽히진 않는다. 미국 완구업체 마텔이 만든 바비인형은 올해 탄생 60주년을 맞았다. 이에 손오공은

**‘베이블레이드’ 인기 시들
‘60주년 바비’ 반응도 조용
뚜렷한 히트 상품 안 보여
‘손오공 잡질 논란’ 악재까지**

3월 ‘60주년 기념 시그니처 바비’의 사전예약 판매를 시작했고, 지난달에는 바비 팝업스토어 운영을 시작했다. 바비 팝업스토어는 어린이날을 겨냥해 이달 7일까지 운영된다.

적극적 마케팅에도 바비는 여아 완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완구업계 히트 상품은 남아가 이끈다는 점에서 여아를 겨냥한 바비가

흥행을 주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대목마다 오프라인 매장에 줄을 세웠던 완구들은 터닝메카드, 베이블레이드 등으로 모두 남아를 겨냥한 완구다. 여기에 우주비행사, 소방관, 대통령, 뉴스 진행자 등 4개 직업을 표현한 바비 인형의 출시일도 내달 초로 잡혀 어린이날을 겨냥한 마케팅으로 힘을 내기에는 시간 여유가 없다.

국내 완구업계 1위인 손오공을 둘러싼 최근 악재도 어린이날 마케팅이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2월 손오공은 신생 장난감 업체 밸류앤밸류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밸류앤밸류가 연구 개발한 애니메이션 ‘듀얼비스트카’의 완구 유통을 손오공이 방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손오공 측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달 초에는 손오공의 전·현직 임직원이 창업자인 최진구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임직원은 최 전 회장이 가족 행사, 차량 리스 비용 등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계열사 돈으로 지불하고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인기 완구 터닝메카드의 새로운 시리즈 ‘빠사메카드’. 사진제공 초이락

SKT-연세의료원 ‘5G 디지털혁신병원’ 연다

**내년 2월 개원 용인세브란스에
5G망 구축하고 특화솔루션 개발
국내 첫 의료기관 5G 통신망 구축**

SK텔레콤이 연세대 의료원과 5G·AI·미디어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에 들어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윤도흠 연세의료원 원장은 2020년 2월 개원 예정인 ‘(신축)용인세브란스’ 병원에 5G 망을 구축하고 특화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뜻을 모으고 26일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기관의 메인 통신망이 5G로 구축되는 것은 국내 최초다.

SK텔레콤은 이번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에 자사가 보유한 5G·AI·IoT·미디어 분야 기술 역량을 결집한다. SK텔레콤과 연세의료원은 ICT와 의료 업계의 만남이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G 디지털혁신병원’ 병실에는 AI 스피커 누구(NUGU)가 설치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음성 명령만으로 침대·조명·TV 등 실내 기기를 조작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간호 스테이션과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다.



박정호(왼쪽) SK텔레콤 사장과 윤도흠 연세의료원 원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병원 내 위치 측위와 3D 맵핑을 통한 AR(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솔루션도 적용된다. 환자와 보호자는 스마트폰의 AR 표지판을 따라 검사실 등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격리 병동 환자를 위해 홀로그램 등 실감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병문안 솔루션도 개발한다.

보안도 대폭 강화된다. SK텔레콤은 민감한 의료정보의 해킹을 막기 위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간 네트워크에 양자암호통신 솔루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진료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의료진은 안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주요

부서에 출입이 가능하다. 기존의 지문인식이나 출입증 태그 방식과 달리 비접촉식이라 감염의 위험도 줄어든다. 주요 시설의 출입 보안도 대폭 강화된다.

SK텔레콤과 연세의료원은 ‘5G 디지털 혁신병원’ 구축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과 연세의료원은 병원에 적용 가능한 5G 기반 ICT 기술을 지속 발굴해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이를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동통신과 의료 업계 간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SK텔레콤은 양자암호통신, 보안솔루션 등 ICT패밀리사의 기술과 서비스까지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병원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흠 연세의료원 원장은 “현 시대는 첨단 디지털시대로, 의료기관에서도 디지털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은 첨단 혁신기술들을 적용하는 지능형 디지털병원으로써 연세의료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에픽세븐-길티기어 포트나이트-어벤져스

모바일 게임 ‘컬래버’ 바람

각각 다른 IP 게임 만나

새로운 콘텐츠 선보여

이용자 “색다른 재미” 호응



국내 게임업계에 컬래버레이션 콘텐츠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각각 다른 IP의 게임이 만나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거나, 기존 게임에 색다른 재미를 창조하는 컬래버레이션은 이용자들의 호응과 함께 ‘대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컬래버레이션이 진행되는 한정된 기간에만 즐길 수 있어 해당 게임의 팬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의 ‘에픽세븐’은 일본 대전 격투 게임의 명작 ‘길티기어’와 손잡고 출시 후 첫 번째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용자들은 길티기어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 중 ‘배드가이 솔’과 ‘바이켄’, ‘디지’를 에픽세븐 내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신규 영웅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이 에픽세븐의 세계에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에픽세븐만의 서브스토리 콘텐츠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스마일게이트는 원작의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 원작의 연출과 디자인은 물론 성우까지 그대로 살려냈으며 여기에 에픽세븐만의 개성을 더해 최고의 완성도로 구현해 냈다.

글로벌 시장에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신작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컬래버레이션(사진)을 선보인다. 포트나이트는 25일(미국 현지시간) 한정된 기간 즐길 수 있는 특별 모드를 업데이트했다. 이용자들은 여섯 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 인피니티 건틀렛을 완성하려 하는 ‘타노스’팀과 이를 저지하려는 ‘영웅’팀으로 나눠 대결을 펼칠 수 있다. 특히 영웅팀을 선택한 플레이어는

어벤져스 등장인물들의 무기를 장비로 획득할 수 있어 특별한 플레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펍지주식회사의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좀비 호러게임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의 최신작 ‘바이오하자드 RE:2’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업데이트된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2가지 특별한 게임 내 모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좀비-황혼의 탈출’ 모드는 최후의 한 팀이 승리하는 배틀그라운드드의 핵심 특징을 탈피하고 좀비의 공격을 버티고 해가 뜰 때까지 살아남은 모든 플레이어에게 승리가 돌아간다. 또 다른 모드인 ‘좀비: 새벽의 저주2’에는 ‘점프형 좀비’와 ‘좀비 개’ 등 새로운 형태의 좀비가 등장하고 낮은 벽을 넘거나 기어오는 좀비도 존재해 긴장감 넘치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컬래버레이션 콘텐츠가 더 많은 유저들에게 알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IP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면 해당 IP의 팬들까지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해외 시장에서 게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면 두 가지 게임 IP를 한 게임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앞으로 국내 게임과 해외 게임 사이에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준 기자 tatio@

SKB, NCSI 9년 연속 인터넷·IPTV 1위

〈국가고객만족도〉

**품질·브랜드 등 각 항목 높은 평가
‘플레이싱스’ 등 키즈 콘텐츠 강화**

SK브로드밴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19년 국가고객만족도(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 조사에서 9년 연속 초고속인터넷 부문과 IPTV 부문 1위를 차지했다.

NCSI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수준, 인지 품질, 고객충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량화한 지표다.

이번 성과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본원적 품질을 높이는 노력 외에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등 고객 가치를 적극적으로 혁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평가 결과에서는 품질, 브랜드, 기업 이미지,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항목에서 만족 요인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B tv를 통해 고객의 취향을 저격하는 서비스를 지속 출시해 고객 가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키즈 대상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TV 홈스쿨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홈스쿨링 서비스 ‘플레이싱스 홈’을 출시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플레이싱스 홈은 만 3세 이하 영유아 대상 홈스쿨링 프로그램으로 한층 진화한 키즈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1년간 약 5만 명의 영유아들을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12일 ‘플레이싱스 홈’을 출시하며 TV 홈스쿨링 시대를 열었다. 사진제공 SK브로드밴드

대상으로 음악 중심 놀이학교를 운영해 온 노하우를 갖고 있는 ‘플레이싱스’와 협업해 TV용 홈스쿨링 서비스 ‘플레이싱스 홈’을 개발했다.

B tv에서 독점 제공하는 플레이싱스 홈은 케네스 브루시아(Kenneth E. Bruscia) 미국 템플대 음악치료학 교수를 비롯한 세계적 음악치료사들과 심리학 교수 등 영재교육 전문가들이 개발·자문에 참여했다.

국내 최초 음악놀이 통합발달 교육 프로그램인 B tv 플레이싱스 홈은 음악이 영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음악의 다양한 장르와 구성 요소를 활용해 영유아들의 인지 능력과 발달과정에 맞춘 놀이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교구재 제작에는 이스라엘의 명품 악기사인 할릴리트(Halilit)이 참여하는 등 프리미엄 학습 프로그램으로 높은 품질을 확보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지키려는 롯데, 도전하는 신세계…변수는 ‘상생’

내달 ‘새 주인 찾기’ 나서는 서울역사·영등포역사

롯데 영등포점, 최장 20년 임대 연장에 신세계 “경쟁 참여”
연매출 1500억 서울역사 사전심사에 상생·공공성 등 포함
롯데마트 ‘물류비 갑질’ 혐의·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 부담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가 5월 초 새 주인 찾기에 돌입한다. 관전 포인트는 유통 공동 롯데와 신세계의 ‘끝없는 전쟁’이다. 특히 신세계·이마트가 올해 초 롯데에 뺏긴 인천터미널점의 복수에 성공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본격적인 입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적격심사에 ‘상생’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가 납품업체 후행물류비 ‘갑질’과 ‘통큰치킨’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극복할 지도 관심사다.

◇최대 20년 사업 가능…높아진 몸값 =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내달 초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5월 중으로 사업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6월 초 사전적격심사로 운영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한 후 6월 말 가격 경쟁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등포역사는 롯데백화점이 운영 중이고, 서울역사는 롯데마트가 사업권을 가진 한화역사로부터 위탁경영을 맡고 있다.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는 6개월간 인수 인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영업에 나

선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역사 사용 연장에 손쉽게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 10년에 불과하고, 재임대가 불가능한 기존 법 때문이다. 하지만 4월 초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병원 및 개인 점포에 재임대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임대기간이 최대 20년(10년+1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통공동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가 예고된다.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수모 ‘영등포역사’로 갇는다? = 유통업계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곳은 영등포역사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지난해 5000억 원가량의 매출을 거둔 롯데의 4위 점포다. 규모만으로도 영등포역사 사업권의 향방은 유통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인근에 영등포점을 운영 중인 신세계백화점은 당초 영등포역사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임대 기간 연장 및 재임대 가능성이 높아지자 적극 참여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역은 현재 KTX 기차역과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2023년 신안선도 추가된다. 신길뉴타운과



5월 초 새 주인 찾기에 돌입하는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왼쪽 사진)과 서울역사 롯데마트.

영등포뉴타운, 여의도 등이 개발되며 배후 수요도 계속 커져 매물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롯데에 인천점을 뺏긴 신세계로서는 굴욕을 만회할 희심의 기회이기도 하다. 신세계는 21년간 영업해왔던 인천점은 지난해 6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노른자 점포였으나 올해 1월 롯데에 영업권을 빼앗겼다. 더욱이 롯데로 넘어간 후 신세계 운영 시기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신세계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고 있다.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올 1~2월 평균 7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이런 추세라면 연 매출 8000억~9000억 원 달성도 가능하다.

신세계백화점은 영등포점과 영등포역사를 동시 운영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업계에서는 영등포역사는 백화점, 기존 영등포점과 타임스퀘어는 스타필드로 운영해 영등포역 일대를 신세계타운으로 꾸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자체 인력을 투입해 시너지 효과를 면밀



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8월 구로본점 영업을 종료하는 AK플라자 역시 입찰 참여를 시사했다. AK플라자 관계자는 “개정안의 진척 여부와 입찰 공고를 확인하는 대로 사업성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마트, 서울역사 방어의 변수는 ‘상생’ = 서울역사는 롯데가 2004년 한화역사로부터 임대해 롯데마트 서울역점으로 운영 중인 연매출 1500억 원짜리 알짜 점포다.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에 위치해 상징성이 있는 데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그간은 경쟁사인 이마트가 인근에 점포를 운영 중이고 홈플러스도 최근 자금 동원력이 힘에 부치는 상황이어서 롯데마트가 쉽게 영업 연장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서울역사도 안심하기엔 이른다.

가격 입찰에 앞서 정성적 평가가 포함된 철도공단의 사전적격심사가 롯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성적

평가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고용 승계, 공공성 확보 계획 등이 들어간다.

롯데마트는 최근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5월 중에 최종 결과를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4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롯데마트의 서울역사 사수에 공정위와 철도공단이 ‘키맨’이 된 셈이다.

최근 ‘통큰치킨’과 ‘극한한우’ 행사를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부담이다. 롯데마트는 최근 최저가가 가격 경쟁에 뛰어들면서 치킨 한 마리를 5000원에 판매하는 ‘통큰치킨’을 9년 만에 부활시켰고, 1등급 한우를 시세의 절반 수준인 100g당 4000원대에 판매해 치킨집과 정육점 등 소상공인들로부터 ‘골목상권’ 침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바 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한화역사는 입찰 공고가 나오는 대로 서울역사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남주현 기자 jooh@

돼지열병에도 이상無…캠핑철 ‘삼겹살 수요’ 불티

G마켓 1개월간 돼지고기 판매
국내산 24%·수입산 57% 증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시즌 대표 식자재인 삼겹살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중국발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수요 부진을 우려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나들이 시즌과 맞물려 매출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캠핑 시즌을 맞아 앞으로 1~2개월간 삼겹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업체는 중국발 돼지열병으로 인한 수입 삼겹살 수급 동향 및 가격 변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G마켓은 최근 한 달 동안(3월 23일~4월 22일) 나들이용 먹거리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돼지고기 판매는 국내산 24%, 수입산은 57%씩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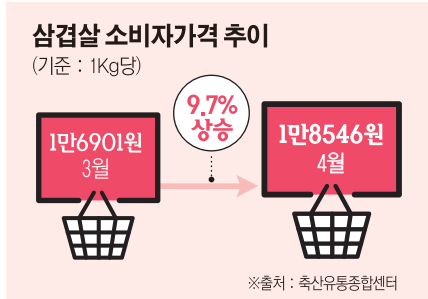
11번가도 최근 한 달(3월 26일~4월 25일) 육류 판매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소시지 64%, 삼겹살 56%, 목살 48%, 구이·스테이크용 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재원 마켓컬리 MD는 “최근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돈육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유럽과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돼지열병으로 인해 국내 돈육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돼지열병 청정국가에서의 돈육 공급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우성 11번가 신선식품 MD는 “돼지열병으로 인한 매출 영향은 아직 없다”면서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정육코너에서 직원이 돼지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뉴시스



“야외활동 시즌이 더 활발해지는 5~6월까지 거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역시 캠핑 시즌에 맞춰 최근 한돈(국내산) 행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1개월간 삼겹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김영훈 인터파크 신선식품 담당 MD는 “최근 중국의 돼지열병이 국내에서는 안전하다는 지속적인 언론보도 덕분에 한돈의 매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저렴한 수입 삼겹살 대신 국내 삼겹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 물량이 소진되는 15~30일 이후부터 나들이 시즌 수요 증가와 맞물리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돼지고기값 인상 추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유통 종합센터에 따르면 3월 kg당 1만6901원이던 삼겹살 평균 소비자 가격은 4월 현재 1만8546원으로 10% 가까이 뛰었다. 국내 전체 돼지고기 유통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국산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야외캠핑 시즌이다 가오면서 인기 식재료인 돼지고기값이 점점 오르는 추세”라며 “아직 수입 돼지고기 가격 상승분은 국내 판매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내 유통업계의 재고 물량이 떨어지는 15~30일 이후에는 수입산과 국산을 막론하고 돼지고기 가격의 도미노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대웅제약 ‘나보타’ 유럽 진출 가시화

CHMP 허가승인 권고…3.5조 규모 시장 확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가 미국에 이어 유럽 시장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 세계 보툴리눔 독신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잇따라 ‘국산 보툴리눔 독신’ 깃발을 꽂는 대웅제약의 행보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26일(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나보타의 미간 주름 적응증에 대해 허가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 CHMP는 의약품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등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논의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집행위원회는 CHMP의 권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판매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7월까지 나보타의 유럽 시판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최종 허가를 획득하면 나보타는 유럽연합 내 28개 국가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속한 유럽 경제지역(EEA) 3개국 등 유럽의 총 31개국에 출시될 수 있다. 유럽 제품명은 ‘누시바(Nuceiva)’이며, 현지 판권은 북미 및 유럽지역 파트너사인 에블루스가 보유하고 있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2014년 국내 출시한 보툴리눔 독신 제제다. 2월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품 중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 유럽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보툴리눔



대웅제약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 사진제공 대웅제약

독신 시장이다.

시장조사기관 이밸류에이트 파마는 전 세계 보툴리눔 독신 시장을 약 5조 원(43억 달러) 규모로 집계했다. 이중 미국과 유럽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출시가 실현되면 나보타는 3조5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는 셈이다.

대웅제약은 먼저 허가받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보타를 수출하고 있다. 관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나보타는 3월 266만 달러, 4월 초 259만 달러 규모로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출시는 5월로 예정돼 2분기에만 100억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쌓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CHMP의 허가승인 권고는 나보타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을 재입증받은 결과로 최종 판매허가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며 “유럽 진출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나보타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수수료 돌려달라” 항소

ABCP 계약 갱신 후 수수료 인상 뒤늦게 확인… 소송 제기
1심 법원 “적법한 절차 따른 것… 돌려줄 필요없다” 기각

미래에셋대우 채권운용부 A씨는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신영증권과 맺은 ABCP(자본담보부 기업어음)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인가 수수료가 오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A씨가 부서에서 ABCP를 통해 운용하는 자금은 계약당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2000억 원에 달한다. A씨는 회사를 통해 신영증권이 부당하게 올린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4일 미래에셋대우가 신영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

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기각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신영증권에 낸 수수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씨가 회사를 통해 신영증권과 거래한 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약 3년 2개월간이다. 이 기간 A씨는 59차례에 걸쳐 회당 26억~1964억 원을 신탁하고, 운용 방법은 ‘A1 등급 이상 ABCP 및 단기성 상품 운용’으로 정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서 문제가 된 것은 ‘1.93% 이

상의 수익률에 대해 수익보수는 100%’라는 ‘수익보수’ 조항이다. 해당 계약은 단순히 금융 수단으로써 활용될 뿐 신영증권이 직접 자금을 운용해주는 상품이 아니다. A씨는 미래에셋대우 회사를 통해 자신이 운용을 맡게 성과가 나올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항은 59차례의 계약 중 35번째 계약부터 새롭게 삽입됐다. 앞서 이뤄진 34번의 계약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고 이후 이뤄진 24번의 계약 중에서도 2번은 해당 조항이 없었다. 미래에셋대우는 재판 과정에서 “자사는 이 조항이 계약에 삽입됐음을 알지 못했고, 신영증권 또한 이 조항이 삽입된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수익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4억6568만 원. 미래에셋대우는 신영증권이 신의칙상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일부러 자사를 기망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신영증권이 수익보수 명목으로 쟁건 4억여 원을 되돌려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미래에셋대우와 신영증권이 계약서를 정당하게 체결했고 두 회사 모두 금융회사인 만큼 계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영증권 직원 B씨는 해당 계약을 진행하면서 해당 사안을 육성으로 고지하고 녹취도 했다.

미래에셋대우가 문제를 늦게 인지한 것도 약재로 작용했다. 법원은 일반회사도 아닌 증권사가 약 1년 2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수익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신탁계약은 수백억 원에서 1000억여 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자금을 신탁하는 계약이므로 교섭 및 체결에 있어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17일 항소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현업 부서의 요청으로 법무부에서 해당 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액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준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로서는 체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기자 pgy@

1분기 실적발표 상장사, 영업익 41% ‘뚝’

〈전년대비〉

전자·화학 수출산업 부진 영향
삼성전자 6.2%로 60% 급감
LG화학 57% 줄어 ‘어닝쇼크’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가운데 이미 발표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67곳의 연결 영업이익은 총 19조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1.50%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전자와 화학 등 수출산업의 부진이 컸다. 시기총액 상위 1위 기업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4% 감소한 6조2000억 원의

주요 상장사 1분기 실적 현황
(단위 :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매출액 증감률	-14.14	-22.33	6.91
영업이익 증감률	-60.36	-68.71	21.07

※출처 : 금융감독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68.7% 감소한 1조3665억 원을 기록했으며 LG화학은 전지 부문의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에 따른 일회성 비용 등으로 57.7% 줄어든 2754억 원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 감소 등의 영향 탓에 53.5% 감소한 3311억 원에 그쳤다. 반면 기아차는 5941억 원을 기록, 94.4% 증가했고 NH투자증권(34.5%)과 현대차(21.1%) 등

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와 비교했을 때도 부진한 모습이다.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43개사 중 1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10% 이상 미달한 어닝쇼크는 13개사(30.2%)였다. 이에 반해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은 8개사(18.6%)에 그쳤다.

LG디스플레이는 애초 증권사들이 평균 914억 원의 영업손실을 예상했지만 실제 적자 규모는 1320억 원을 기록, 예상치를 약 44% 넘어섰다. 삼성물산 역시 영업이익이 1052억 원에 그쳐 시장 기대치인 2167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와 LG화학이 시장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기록, 어닝쇼크 명단에 포함됐다.

고대영 기자 kodae0@

유가·환율 급등에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쳐

코스피, 다시 내리막길

국내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유가 상승과 환율 급등, 실적 부진 등 잇따른 악재로 코스피 약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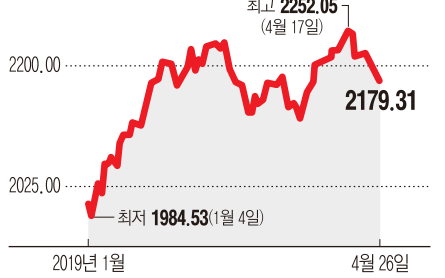
2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19포인트(-0.51%) 하락한 2179.31에 거래를 마치며 사흘째 하락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5원 오른 1161원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증가 기준 달러당 116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17년 1월 31일(1162.1원)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무역분쟁 완화와 미국금리 인상 완화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그러나 달러 강세와 유가 상승 등 대외 변수가 등장하면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연초 배럴당 46달러를 기록했던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66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오현석 삼성증권 센터장은 “주식과 원화가 악하게 움직이는 분위기인데 환율 급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또 1분기 실망스러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지뢰밭 같은 실적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종목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2100~2200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스피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1

코스피 지수 추이



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다. 실적 발표를 앞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센터장도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주가수익비율(PER)이 11배가 넘는데 특별히 이익 전망이 개선되거나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향후 펼쳐질 전망이 밝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1분기 실적 시즌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구용욱 미래에셋 센터장은 “GDP 부진과 영업이익 하향 조정 등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공존해있다”며 “하반기에는 이익 전망이라는 성장률이 하강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BOP 프로젝트 연 3000억 추가 수주 기대”

〈화력발전 플랜트 보조기기 설비〉

기업탐방

비디아이

화력발전 플랜트 보조기기 설비(BOP) 전문업체인 비디아이의 매출액이 급성장할 전망이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발전소의 관련 투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연간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외형 확장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비디아이는 1월 남동발전과 1600억 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상당액이 올해 실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관련 친환경설비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비디아이가 발전소의 투자 확대를 대규모 수주로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과거 780억 원 규모의 태안화력 9·10호기 신규 발전소의 환경설비를 수주해 납품을 완료한 등의 실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과 달리 상황에 맞는 유연한 인력 운용으로 인당 생산성을 극대화한 조직의 효율성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비디아이가 납품한 영흥화력발전소 화처리시설.

정부 친환경 발전소 정책 편승
남동발전과 1600억 공급계약
2~3건 추가 목표… 외형 확장

자체 개발과 기술 협력을 통해 각 영역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도 주효했다. 주력 사업 부문인 화력발전소 보조설비에는 전기집진기 및 탈황설비, 화처리 설비, 석탄 취급 설비 부문 등이 있는데, 비디아이는 화처리 설비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49.6%로 업계 1위다. 또 석탄 취급설비 부문에서는 비용 절감이 뛰어난 사일로 특허와 소화설비를 구비한 석탄저장설비 특허를 가지고 있다. 탈황설비의 경우 가와사키(Kawasaki)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있다.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전소 환경설비 관련 프로젝트 2~3건을 추가로 수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자체 수주 능력을 고려했을 때 최대치라는 설명이다.

기존 사업과 별도로 자회사를 통해 저탄소화설비 사업에도 신규 진출할 예정이다. 화재 발생이 잦은 저탄소에 적용될 기술로 6월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다.

발전소에 이 기술이 적용될 경우 발전사당 200억~3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의 추가 매출을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특허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발전소 한 곳에 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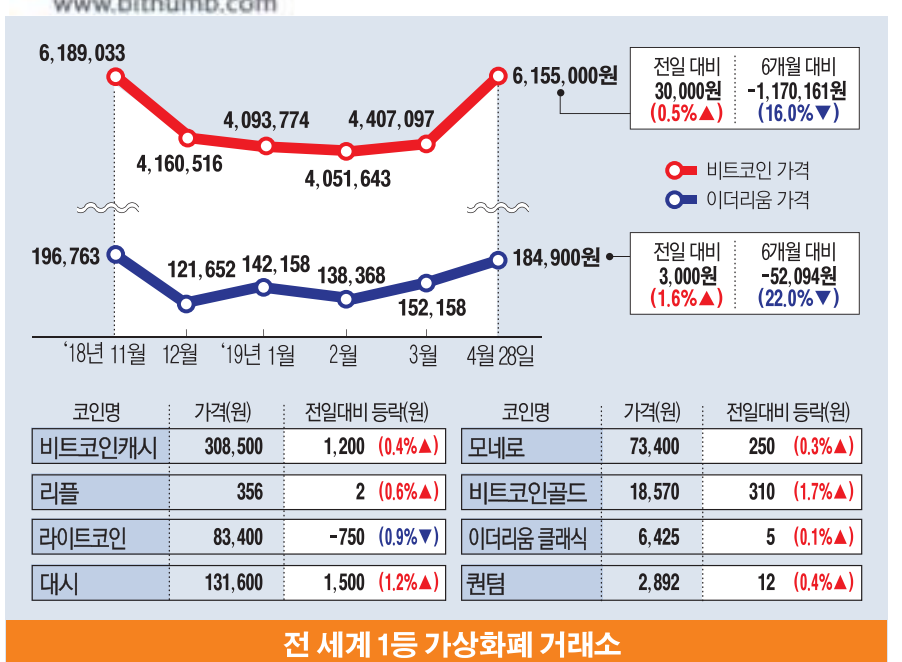
앞서 한국전력은 미세먼지 저감 이행 대책으로 기존 발전소 설비 전면 교체와 발전소 환경설비 강화에 2022년까지 7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비디아이의 수혜는 지속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정치권에서도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속한 정책 집행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gy@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4월 28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라이프 스타일 맞춰… 아파트도 ‘맞춤제작’ 시대

필요에 따라 가벽 이동으로 방 1~4개까지 구성
획일적 구성 벗고 수십개 평면 갖춘 단지 인기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맞춤제작)’ 서비스가 아파트 평면에도 도입되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각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아파트 평면을 제공하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반려동물과 가족을 이루는 ‘펫팜족’부터 부모에게 의존해 거주하는 ‘캥거루족’,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아이가 있지만 맞벌이를 하는 ‘듀크족’ 등 그 형태가 매우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건설사들도 이런 추세에 맞춰, 다양한

수요자를 품을 수 있는 평면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기존 획일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평형에 따라 수십 개의 평면을 갖춘 단지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런 단지들의 경우 분양 성적 역시 좋은 편이다. 2016년 분양한 ‘힐스테이트 삼송역’은 거실과 방 사이에 유리벽면을 투명 또는 불투명으로 바꿀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 옵션을 선보였다. 평상시에는 투명유리로 유지해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차단된 공간이 필요할 때는 스위치를 눌러 유리를 불투명 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일부 평면에서는 현관에서 거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했다. 현관 입구를 기준으로 각 침실이 떨어져 있어 임대용으로 활용하거나 자녀 방 또는 독립된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일산2차 아이파크에 적용되는 무방월도어 이미지 예시. 자료제공 HDC현대산업개발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단지는 평균 11.1대 1, 최고 22.1대 1의 청약 경쟁률 기록했으며, 단 3일 만에 100% 계약 완료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커먼라이프 역삼 트리하우스’는 싱글족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이 단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싱글족을 위한 맞춤형 평면을 선보여 눈길

을 끌었다. 지상 1층에 위치한 공용 공간에 반려동물 사위실을 배치했으며, 전용 16㎡에는 캣타워와 캣워크 역할을 하는 창틀 선반을 곳곳에 설치한 것이다. 한 달 119만~159만 원의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주율은 80%에 달한다.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실용성은 극대화하고 개성을 살린 ‘커스터 마이징’ 평면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에서 선보이는 ‘일산2차 아이파크’는 보육에 특화된 평면을 선보인다. 육아기 가정을 위해 침실과 침실, 거실과 침실 사이 가벽을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무방월도어’로 설치한다. 무방월 도어를 통해 수요자는 어린 자녀의 모습을 방과 거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모차나 자전거 수납으로 복잡했던 현관에는 별도 수납 공간을 배치하며, 일부 평면에서는 테라스와 유아용 욕조도 설치

한다. 또한 대림산업이 이달 공급하는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는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인 C2 HOUSE가 첫 적용된 단지다. 각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평면 구조 변경이 자유롭다. 평형에 따라 방을 1~4개까지 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폭 넓은 구성을 자랑한다. 아울러 GS건설이 내달,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서 공급하는 ‘과천제이드자이’는 전용면적 60㎡ 미만으로만 구성된 소형 아파트지만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전용면적 59㎡A은 4베이(Bay) 판상형으로 설계됐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붙박이장이 제공된다. 전용면적 59㎡B와 59㎡T는 별도의 테라스 공간이 구성된다. 방 두 개와 거실로 구성된 전용면적 49㎡는 타입에 따라 팬트리와 알파룸 또는 다용도실과 발코니 공간이 마련된다. 구성한 기자 carlove@

취임 한달 늦어진 변창흠 LH 신임 사장

‘주거정책 지원·부채·인력관리’ 과제 산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변창흠(사진) 세종대 교수가 임명됐다. 취임 시기가 한 달가량 늦어진 만큼 조직 안팎으로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변 사장의 임기는 2022년 4월 28일까지다. LH는 올해 1월 본부별로 2019년 경영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과제는 주거정책 지원, 인력 및 부채 관리로 함축된다. 먼저 정부 주거정책에 있어 LH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105만 호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LH도 신규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다. 기획재무본부가 세운 올해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을 합친 총사업비는 15조7148억 원, 공급금액 15조5611억 원, 대금회수 18조4985억 원으로 계획했다. 주택



부문만 보면 사업 승인은 7만5267호, 착공 7만 8178호, 준공 5만 2504호로 각각 계획했다. 입주자 모집은 5만5658호, 계약 3만917호로 계획을 세웠다. LH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수도권 공급 확대, 세제·금융 등 수요억제 정책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은 안정세, 지방권은 하락세로 예상했다. LH는 “판매 여건은 우량 재고가 소진되고 있으며 지방 신규택지 공급 억제 등 제도적 제약 증가, 수익 악화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인력과 부채관리도 변 사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작년 말 기준으로 LH의 전체 인력은 9111명(정규직 6755명,

무기계약직 2349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1990년 전후로 입사한 ‘1기 신도시 입사세대’의 고령화가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영혁신본부는 올해 업무 추진 여건을 짚으면서 효율적 인력 운용 및 인력 구조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대외적 요청이 증대되고, 1기 신도시 입사세대 고령화와 업무직 증가 등 인력 구조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부채 관리도 주요하다. 작년 반기 기준으로 LH 부채 비율은 296.5%(부채 약 130조8700억 원, 자본 약 44조 1296억 원)로 집계됐다. 2017년 말 306.27%보다는 소폭 하락한 수치다. LH는 2022년까지 부채비율을 262%까지 개선할 목표를 갖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서울 아파트값 23주 연속 하락

입주 물량 강동 약세 두드러져
잠실주공·은마, 5000만원 올라

서울 아파트값이 23주째 하락했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떨어졌다. 전주 마이너스(-) 0.03%보다 하락폭을 확대했다. 일반아파트가 0.08% 하락해 전주(-0.04%)보다 낙폭이 컸다. 재건축은 급급매 소진으로 매물이 줄어들며 0.14% 상승했다. 서울을 보면 △강동(-0.53%) △서대문(-0.30%) △중구(-0.30%) △노원(-0.13%) △광진(-0.08%) △강서(-0.07%) △도봉(-0.07%) △영등포(-0.06%) △은평(-0.06%) 순으로 떨어졌다. 강동은 고덕동과 상일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주변 일반아파트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상일동 고덕숲 아이파크가 2500만 원, 암사동 롯데캐슬 퍼스트가 2500만~1억 원 떨어졌다. 서대문은 매물이 전반적으로 쌓여있는데 수요자의 문의는 드물었다.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가 3500만 원 땀졌다. 중

구는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가 4000만 원, 노원은 중계동 중계2차한화꿈에그린더퍼스트와 경남아너스빌이 1000만~3500만 원 하락했다. 반면 △송파(0.03%) △강남(0.03%)은 주요 재건축단지의 급매물이 줄어들면서 상승했다. 송파는 잠실동 주공 5단지가 3500만~5500만 원, 강남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가 2500만~5000만 원 올랐다. 경기인천은 △광명(-0.10%) △광주(-0.10%) △의정부(-0.09%) △구리(-0.07%) △성남(-0.04%) △시흥(-0.04%) 순으로 떨어졌다. 반면 △수원(0.02%) △군포(0.01%) 등은 소폭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 격은 0.07% 하락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강동(-0.56%) △은평(-0.43%) △강남(-0.40%) △동대문(-0.15%) △강북(-0.10%) △서대문(-0.07%) 순으로 떨어졌다. 강동은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6월), 고덕동 고덕그라시움(9월) 입주 임박으로 주변지역 영향력이 확대됐다. 암사동 관나루삼성이 1000만 원, 명일동 신동아와 우성, 한양 등이 1000만~3000만 원 빠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주의 분양캘린더

5월 첫째 주 전국에서 6751가구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아주 일원대우 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포레센트’,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에코시티데시앙’,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우아한시티’ 등이 청약을 개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15곳에서 진행된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 클래스’, 경기 부천시 원미동 ‘이안더부천’, 용인시 동천동 ‘수지동천꿈에그린’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아주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12곳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 ‘e편한세상일산어반스카이’,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더샵퍼스트시티’,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레이

크푸르지오’, 경기 구리시 수택동 ‘한양수자인구리역’ 등이다. 견본주택은 5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퍼리지오더프레티움’,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레신도시우미린1차’,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부산 동래구 명륜동 ‘힐스테이트명륜2차’ 등이 다음 방문객을 맞는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4/29 (월)	접수	경기	용인시	동천동	수지동천꿈에그린 ♣ (~4/30)	5/2 (목)	접수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일에코앤e편한세상(공공분양)B9 1순위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트레비엔H-CITY ♣			화성시	기안동	화성우방아이유셀메가시티(1단지)		
		충북	청주시	모충동	청주모충LH트릴로채(공공분양) 1순위			화성우방아이유셀메가시티(2단지)				
	계약	경기	고양시	일산동	e편한세상일산어반스카이(~5/1)			경남	진주시	정촌면	진주정촌울리움(국민임대) 1순위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더샵퍼스트시티(A1) (~5/1)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에코시티데시앙(14BL) 1순위		
	부산	동구	범일동	서면베스티움더시티 ♣	우아동3가	우아한시티 1순위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레이크푸르지오 (~5/2)	5/3 (금)	계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성도르피스더스테이(민간임대) (~5/3)		
	전북	경기	용인시	동천동			수지동천꿈에그린 ♣ (~5/3)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일에코앤e편한세상(공공분양)B9 2순위	
		고창군	고창읍	고창성정파크빌3차 (~5/1)			경남	진주시	정촌면	진주정촌울리움(국민임대) 2.3순위		
		전주시	서완산동2가	서완산골드클래스 (~5/1)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에코시티데시앙(14BL) 2순위		
	충남	논산시	취암동	논산골드타워 (~5/2)			우아동3가	우아한시티 2순위				
	4/30 (화)	접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포레센트 1순위(당해지역)	5/4 (토)	계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트레비엔H-CITY ♣
충북			청주시	모충동	청주모충LH트릴로채(공공분양) 2순위							
계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SJ라벨라 ♣							
		경기	구리시	수택동	한양수자인구리역 (~5/3)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피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현대엔지니어링, 러 메탄올 플랜트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해외 선진 건설기업들이 주로 맡아온 고부가가치 분야인 기본설계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200만 달러 규모의 메탄올 플랜트의 기본설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주처는 가스 신테즈로 러시아 민간 석유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안드레이 칼리닌 가스 신테즈 사장, 러시아 민간 석유기업 관계자 및 투자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쪽 875km에 위치한 비소츠크 지역에 일산(日産) 5000톤급 메탄올 생산공장과 유틸리티 및 부대설비에 대한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3개월 동안 기본설계를 수행한 후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금액을 확정해 EPC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EPC 금액

은 최소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인근 독립국가연합에서 기본설계를 비롯해 후속 EPC까지 완벽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높은 신뢰를 갖게 된 러시아 발주처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초청했으며, 유럽, 미국, 일본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들을 제치고 최종 계약까지 성사시키는 쾌거를 거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를 통해 우수한 설계 기술과 EPC 사업 수행 능력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한국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유럽, 러시아 지역의 플랜트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발주처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주한 사업인 만큼 그동안 축적한 기본설계 및 사업수행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현대엔지니어링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한 기자 carlove@

“버스기사, 차량·주차장 대기 온전한 휴식으로 볼 수 없다”

대법, 직업적 특성 고려 과로사 인정… 원심 뒤집어

버스 운전기사가 휴게실이 아닌 곳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이 아닌 만큼 이를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과도한 업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세차를 하다 쓰러져 사망한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세버스 운전기사였던 김 씨는 2015년 10월 배차받은 버스에 주유를 하고 세차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김 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45시간이었는데 사망하기 1주일 전부터 74시간을 초과하는 등 업무량이 급증했으며, 휴무 없이 운전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던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김 씨의 업무는 자율성이 있고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 2심은 “김 씨가 사망 전 1주일간 총 72시간 근무해 한 달 평균인 약 47시간의 업무시간보다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대기시간을 포함한 것”이라면서 “대기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38시간 25분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업무와 김 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김 씨가 사망 전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늘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씨는 대기시간에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있었고 승객들의 일정에 따르다 보니 규칙적이지도 않았던 만큼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발병 당시에 업무로 인한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상속세 실효세율 따져보니 ‘평균 17%’

상속재산 절반, 비과세 공제

최근 10년간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자들이 실제로 낸 상속세율은 평균 1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재벌닷컴이 국세청 통계자료에 기초해 2008~2017년의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 10년간 5만9593명이 가족 등에게 물려준 상속재산 98조 7712억 원에 대해 납부된 상속세는 17조597억 원이었다.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평균 실효세율은 17.3%인 셈이다.

또 기초공제 등 비과세로 과세 대상에서 빠진 공제가액 비율이 지난 10년간 평균 46.8%에 달하면서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낮게 나왔다.

이 기간 연도별 상속세 실효세율은

15.8~18.7% 범위에 있었다.

아울러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공제가액 비율은 44.0~50.7%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가액별 실효세율을 보면 상속재산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효세율의 하락세가 한층 더 두드러졌다. 연도별로 보면 상속재산 가액이 500억 원을 넘을 때 실효세율은 2012년 48.3%에서 2013년 47.1%, 2014년 44.7%, 2015년 39.9%, 2016년 30.9%까지 하락했다. 2017년에는 32.3%로 집계됐다.

30억 원 이하 상속재산에 대한 실효세율은 2012년 6.4%에서 2013년 6.5%, 2014~2015년 각 6.6%, 2016년 6.2%, 2017년 6.8% 등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운전자 바뀌치기” 음주 경찰관, 강등 정당

재판부 “높은 도덕성 갖춰야”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뀌치기’를 시도한 경찰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교통사고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동승자 B씨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되자 A씨는 사고 발생 6일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지방경찰청장은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폭설로 대리기사를 부르기가 어려워 호출이 쉬운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것”이라며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 단계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다”며 강등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고 동승자가 거짓 진술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기간제 직원만 야근 배정 병원 인권위 “신분 이유로한 차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야간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의료원은 환경미화원의 근무조를 편성하면서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저녁조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야근 조에 기간제 근로자만 배치해 왔다.

이 의료원은 만 60세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로, 만 60세 미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구분해 60세 이상만 저녁과 야근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형행색색’ 중앙아시아의 매력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봄맞이 축제인 ‘나우르즈’ 페스티벌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및 현대 의상을 선보이는 패션쇼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나만의 공간을 행복하라
Agit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잼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잼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잼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1000원을 1원으로… 불붙은 리디노미네이션 논란



김남현의 **알가알부**

“분명히 저희들은 리디노미네이션을 그야말로 논의를 한 번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의 이 한마디가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 단위 절하) 논란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은 국정감사 등 기회가 될 만한 자리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그야말로 단골메뉴로 나오던 질문이었다. 그때마다 한은 총재는 원론적 답변에 그치면서 잠시 스치는 이슈 정도에 불과했었다.

이 같은 답변을 이끌어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친김에 국회 토론회까지 준비 중이다.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토론회에서 찬반양론 의견을 청취한 후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리디노미네이션 장단점은 = 리디노미네이션은 한마디로 1000원을 1원(혹은 환)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경우 10만 원은 100원이, 100만 원은 1000원이, 1억 원은 10만 원이 된다.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으로 세가지를 꼽는다. 우선 거래 가장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단위가 커지게 되면 숫자 '0'을 붙이는 일이 많아져 번거로움은 물론, 자칫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26일 현재 1달러당 원화환율은 1161.0원으로 표기 중이다. 이 같은 네 자릿수 환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단위수가 큰 편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달러 표기에 1000단위가 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환율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수치다. 한은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통화단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1300원 하는 새우깡이 1.3원이 된다면 단위당 구매력이 커지는



2005년 이후 리디노미네이션 실시 국가

국가	시행시기	비율	화폐단위
터키	2005년 1월 1일	1,000,000:1	리라(신리라)
루마니아	2005년 7월 1일	10,000:1	레이(레이)
아제르바이잔	2006년 1월 1일	5,000:1	마나트(마나트)
모잠비크	2006년 7월 1일	1,000:1	메티칼(메티칼)
가나	2007년 7월 3일	10,000:1	세디(세디)
베네수엘라	2008년 1월 1일	1,000:1	볼리바르(볼리바르)
투르크메니스탄	2009년 1월 1일	5,000:1	마나트(마나트)
잠비아	2013년 1월 1일	1,000:1	콰차(콰차)
베네수엘라	2018년 8월 20일	100,000:1	볼리바르(볼리바르)

韓,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1달러 표기에 1000단위 넘어 “국력에 걸맞은 통화단위 필요” 가격착시 따른 인플레이 유발 우려 금융시장 혼란·불확실성 증대 “득보다 실 많다” 경계 목소리도

효과도 있다.

반면 단점도 많다. 당장 새로운 단위에 적응하려면 불편함이 크다.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 또, 갑자기 값이 싸게 보일 수 있다. 5억 원하던 아파트값이 50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치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즉, 5억 원짜리가 5억5000만 원이 되는 것보다 50만 원짜리가 55만 원이 되면 저항이 덜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를 화폐환상 내지 화폐착시라 부른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나라는 2005년 이후 아홉 국가가 있다. 다만 경제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많다. 그나마 2005년 터키 사례가 모범 사례로 꼽힌다. 시행 과정과 시행 후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금융·경제상 별다른 혼

란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그 배경으로 전 국민적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을 비롯해 범 국가적으로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상황 엄중,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 비판도 만만치 않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이달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화폐개혁? 이런 헛소리가 왜 나오나”라며 일갈했다. 그는 “화폐개혁의 보편적 목적은 숨어 있는 자금 찾기와 인플레이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실물시장의 위축, 부동산·금융·외환 등으로의 자금이동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볼 때 화폐개혁은 얻을 것은 별로 없고 잃을 것은 너무 많은 발상이다. 정치적으로는 이슈 블랙홀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경제위기 초래의 ‘Black Elephant(검은 코끼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검은 코끼리’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창안한 조어로 ‘검은 백조(Black Swan)’와 ‘방 안의 코끼리’를 합성한 말이다. ‘검은 백조’란 백조가 검은색이 될 확률처럼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 실제 벌어져 큰 충격을 주는 사건

을, ‘방 안의 코끼리’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크고 무거운 문제를 비유하는 말이다. 즉, 검은 코끼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사건이란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해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가리킨다.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경제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주열 총재도 사실상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을 없었던 일로 돌려세웠다.

이 총재는 18일 4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대효과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다. 때문에 그야말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엄중한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은 리디노미네이션보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집중해야 할 일이 훨씬 많고 중요한 때”라고 부연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선진국 2배 수준 지하경제 양성화”

이원욱 의원, 화폐개혁론

“우선은 지하경제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두 배 정도나 된다.”



26일 이원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긴 지난해부터 줄곧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장해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이 의원은 국회 토론회까지 열 예정이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은 지하경제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00조 원이 안 되는데 지하경제는 20~25%로 보고 있다. 400조~500조 원이 묻혀 있는 것이다. 둘째 환율 표기 단위가 네(자릿수) 단위다. 주요 선진국에는 거의 없다. 세계 11~12위권의 경제 위상에 맞는 화폐단위가 필요하다. 셋째는 이미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까운 카페에 가봐도 3200원을 3.2로 쓰고 있다. 넷째는 경제 규모나 증권, 주식 거래량 등을 표기할 때 이미 경 단위를 돌파하고 있다. 이런 여러 이유로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다.”

kimnh21c@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흐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은 토픽성격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안전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뉴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왔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뉴얼 말고 실전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꿈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전 대뉴얼이자, 후속한 성장설계이다. ODS의 “필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재산과 구성원들의 명과 명명,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999원 지음 / 200쪽 / 국문판권 / 214.800원

HOW 1000원을 읽고 1,000원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어쩌다 보면 한 권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함은 물론, 깊이 있는 읽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정훈 지음 / 200쪽 / 국문판권 / 215.800원



때로는 도전을,
 때로는 안정을 거둬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보다 가치 있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삶을 마주하는 금융을 합니다
LIFE MEETS LIFE, LIFEPLUS



LIFEPLUS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선택·재량근로 등 유연근무제로 글로벌 경쟁력 ‘UP’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 이루고, 효율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개발과 사무직 대상으로 주 단위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원에게 근무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 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했다. 이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인 근무 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월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업무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관리에 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열린 ‘임직원 가족초청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과 아이들이 함께 드론을 만들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해서 직원에게 완전한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 근로제’도 도입했다. ‘재량 근로제’는 법적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제도다.

삼성전자는 해당 업무 중 특정 전략 과제 수행 인력에 한해 적용하고 구체적인 과제나 대상자는 별도로 선정한다.

제조 부문은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효율적인 근무로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는 자율 출근제를 2009년부터 도입했다. 자율 출근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임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로, 일률적인 출퇴근 시간 적용에서 벗어나 임직원이 육아 등 개인 사정과 시간 활용 계획에 따라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2015년부터는 자율 출근제를 확대해 ‘자율 출퇴근제’로 발전시켜, 1일 4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14년 7월 디자인과 연구개발직군으로 확대됐고, 2015년 3월 말부터 생산직을 제외한 전 직군으로 확대됐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2011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고정관념 넘어선 혁신적 기업문화 확산 ‘선도’



전통을 중시하고 역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자동차 산업은 변화에 인색한 보수적 산업군이다. ‘자동차=안전’이라는 등식이 팽배했던 만큼, 과감한 혁신은 자칫 경박스러운 기업문화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품질과 내구성, 안전을 앞세워 정형화된 기업문화 속에서 빠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렇듯 철옹성 같았던 현대차의 기업문화도 최근 빠르게 새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정관념을 깬 혁신적 기업문화가 속속 회사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시작점은 지난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정의선 부회장이다. 정 부회장은 “IT기업보다 더 IT기업다워야 한다”고 공언해 왔다.

출퇴근 문화가 먼저 변했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전 10시~오후 4시를 업무 집중시간으로 쪼갰다. 이 시간을 앞뒤로 정해진 업무시



정형화된 복장과 출퇴근 시간을 벗어난 현대차는 IT기업보다 더 IT기업다워지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간을 채우면 출근과 퇴근이 자유롭다. 예컨대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출근한 시간부터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일한 뒤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직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획일적인 규정 대신 업무별 특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도입한 제도다.

근무복도 자율복으로 바꿨다. 정형화된 넥타이와 검정 슈트로 제한했던 복장문화에도 새 바람이 불어온 것. 업무상 필요할 때 정장

을 하든, 캐주얼을 고르든 직원 자율에 맡겼다. 본사의 경우 복적이던 점심시간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정해진 점심시간을 확대해 원하는 때를 골라 점심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워라밸을 끌어올리기 위한 회사의 배려다.

현대차는 조만간 조직 명칭 변경, 직급 체제 전환 등 새로운 시도를 앞두고 있다. 기업 문화 전반을 새로운 경영 방향성과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변화시킬 예정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한 직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임신 축하 선물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CJ 올리브네트웍스

임산부용 사원증·선물…출산·육아 ‘배려 캠페인’



CJ올리브네트웍스가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IT사업부문이 임신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부서 내 임신부가 생기면 임신부용 사원증을 제공한다. 초기 임신부는 겉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분홍색 줄의 사원증을 별도로 제작해 직장 동료는 물론 주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는 전자파 차단 담요, 임신부 전용 치약, 크림, 오일 등 뷰티 제품과 초음파 사진 앨범, 신생아 모빌 등 10종 세트의 축하 선물을 제공해 회사에서 함께 축하하고 있다. 출산 시에는 신생아 출산용품 또는 한우 세트를 선물한다.

이외에도 임신 기간 중 몸이 무거워지는 임신부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교통비를 지원한다. 출근 또는 퇴근시간 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CJ 관계자는 “여성 임직원이 전체 구성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인재를 위한 다양한 배려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임신과 출산에 보다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J그룹은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워라밸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출산 후 새롭게 부모가 된 임직원의 경우 생후 3개월까지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한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 직원을 위한 난임휴가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쉬어야 할 경우 최대 10개월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 임신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급체계 단순화하고 출퇴근시간 자유롭게 결정



LG는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높일 수 있도록 내부 근무 기준을 마련해 적극 시행중이다.

LG전자는 작년 2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사무직 직원들이 하루 근무시간을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초부터는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기능직의 경우 52시간 근무제를 전 생산라인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사무직 직원들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4월부터는 주중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주말 근무가 불가피하면 주중에 휴일을 부여해 초과 근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

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기존보다 30분씩 앞당겨진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으로 조정했다. 임직원이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근무시



LG생활건강은 임직원이 유연하게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플렉시블 타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LG

간을 파주, 구미 사업장에 맞춰 일원화한 것이다. 작년 2월부터는 ‘플렉시블 타임 제도’를 시행해, 임직원이 필요할 때 평일 및 휴일 출퇴근 시간을 오전 6시~오후 2시 중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LG생활건강은 이미 2005년부터 5가지의 출퇴근 시간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LG이노텍은 2010년부터 워킹맘, 원거리 출퇴근자 등을 위해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 8시간 근무시간을 지키면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제도

를 실행했다.

한편, 2017년 LG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LG 계열사들은 더욱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했다.

계열사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지만 기존 직위, 연공 중심의 단계에서 역할에 따라 직급체계를 단순화했다. 직급에 따른 보고 체계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평적인 소통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조치이다.

“퍼스트 펭귄처럼 시도하라”…행복 재충전 노력 병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구성원들에게 용기 있게 변화를 시도하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될 것을 주문했다.

퍼스트 펭귄이란 남극의 펭귄 무리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사냥을 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말한다. 퍼스트 펭귄이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도 그를 따르게 되는 데서 유래한 말로,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용기 있게 도전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을 빗대는 말로 쓰인다.

행복 추구와 워라벨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구성원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제안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변화의 시작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작은 실천이 일하는 방식과 사업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행복 토크’에서 임직원들과 행복키우기를 위한 작은 실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조의 근본적인 혁신의 시발점이 되고 구성원과 회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특히 최 회장은 “본인 스스로 행복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구성원 스스로도 행복을 추구하지만 회사 차원의 선제적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탐장 결재 없이 ‘본인 기안 후 본인 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SK텔레콤도 ‘휴가 셀프 승인’ 제도를 통해 구성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무일 기준 최대 10일에 달하는 SK이노베이션의 ‘빅 브레이크’ 휴가, 45일간 사용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리프레시 휴가 등 구성원들의 재충전을 돕는 장기 휴가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연근무제, 사업장 내 어린이집 운영, 초등학교 자녀 돌봄 휴직제도 신설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대 2년간 근무시간 조정해 육아 지원



포스코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탄력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익일대휴 등 다양한 근무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포스코는 여성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新)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했다. 일례로 난임을 겪고 있는 직원이 둘째를 낳을 경우, 난임치료를 위해 5일 휴가를 사용하고 출산 시 5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육아지원근무제’를 최대 2년까지 활용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

포스코는 서울, 포항, 광양 등 사업장에 어린이집과 포레카 등 가족친화적 시설도 마련했다. 특히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직원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창의 놀이방 ‘포레카’는 2009년 9월 포스코센터에 오픈했다. ‘포레카’는 포스코와 ‘유레카’의 결



포스코 드론 동호회 RC클럽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펼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합어로, 문제 해결의 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포스코는 1990년대 중반 국내 최초로 기업 내 심리상담실을 도입했다. 심리상담실 ‘마음쉴’에서는 직원들의 심리안정 수준별·연령별 특징을 반영한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리서비스는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및 교육의 형태로 제공된다.

포스코는 회사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해 직원들의 주택자금 및 생활안

정자금 대부, 자녀학자금, 장애인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에 활용하고 있다.

포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사내 동호회 서비스 ‘동호동락’을 운영 중이다. 2017년부터는 세대 간 소통과 신뢰를 쌓는 ‘톡톡캠프’를 열어 창의와 혁신의 조직문화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약 5700명을 대상으로 진행 된다.

업무 집중·정시 퇴근…‘굿잡’ 캠페인 96% 만족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기업들이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KT는 차별화된 근무 문화 캠페인 확산에 나서고 있다.

KT는 지난해 임직원 대상 진행한 ‘굿잡(9oodjo6, 정시 출퇴근·일하는 방식 혁신)’현황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업무 유형에 따라 최고 95.8%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은 KT 임직원 7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이중 78.4%가 워크다이어트 효과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각 상세 항목별로는 정시 출퇴근 준수에 대한 만족도가 97.8점을 기록하며 가장 높게 나왔다.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왔는데, 상사의 지시는 95.8점, 회의 방식 94.2점, 보고 방식은 94점 등을 기록했다. 2017년 대비 각 항목의 상승폭은 회의 방식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8.8점이나 상승했다.

KT는 지난해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9 to 6(오전 9시 정시 출근, 6시 정시 퇴근)’ 근무 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KT 직원들이 생산성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집.중.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일문화 캠페인 ‘굿잡(9oodjo6)’을 운영 중이다. 굿잡(9oodjo6)은 KT의 임직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 문화 명칭으로, ‘9 to 6’ 근무를 통한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과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회의 문화 △보고 △지시 △업무집중 △리더의 솔선수범 등 업무 개선 방안을 임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업무사이트 등에 게시해 내재화하는 방식이다.

KT가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선 것은 회의문

화다. KT는 생산성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집.중.해’라는 슬로건을 통해 회의실 사용은 1시간 이내, 적극적인 목소리 내기, 명확한 결론 도출이라는 지침을 세우고 확산시켰다. 이후, ‘보고 간.결.해’, ‘지시 명.확.해’, ‘업무집중 몰.두.해’, ‘리더의 솔선수범 필.요.해’ 등의 슬로건을 만들었다.

KT 관계자는 “물리적인 근무시간 단축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의 효율적인 일하는 방식 개선에 회사가 발벗고 나서 대다수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호응도 높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0월 본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탄력적인 근무제를 시행했다.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답을 찾아 현장으로’ 토크콘서트 등 관심



현대모비스는 미래차 연구개발 주 도기업으로서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임직원들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이 대표적

이다.

현대모비스는 주 52시간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지자체 10월 본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탄력적인 근무제를 시행했다. 올해 3월부터 경기도 기술연구소 등 연구직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집중근무시간인 10시부터 16시를 제외하고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현대모비스는 탄력근무제 도입과 함께 본사 기업문화팀과 연구개발문화팀 등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꾸렸다. 창의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현업 부서마다 실행자 역할을 담당하는 CA(Culture Agent)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약 200명의 CA 중 연구소 인원은 100명 정도. 현대모비스는 조직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팀 단위로 CA를 확대했다.

대표적인 기업문화 활동은 ‘답을 찾아 현장으로’다. 현대모비스의 미래차 테스트 현장인 △충남 서산주행시험장 △충북 진천공장 △충북 충주공장 등 국내 각 사업장을 본사와 연구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차원이다.

‘2030 토크콘서트’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소 임원들과 젊은 연구원들과의 열린 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대모비스가 주력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EE연구소(Electrical and Electronics)를 시작으로 콘서트를 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의 기업문화 혁신 활동은 리더와 구성원, 조직에 대해 △직무 △소통 △인프라 △강화의 3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승진하면 한 달 휴가... 재충전·자기계발 시간 부여



한화 직장 어린이집 개원식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



한화그룹은 젊고 미래 지향적인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안식월,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제도는 직급 승진 시 1개월간의 안식월을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휴식 기간 새롭게 부여된 직책에 대한 각오와 계획 등을 차분히 설계하고, 재충전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를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한 유연근무제도도 전격 도입했다.

개인별 업무 상황에 따라 미리 신청하기만 하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계열사별 업무 특성상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운 회사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해 추가 업무를 최소화하고,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등으로 조직 몰입도를 제고하고 있다.

여성 직원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역시 시행하고 있다.

한화는 2013년부터 핵심 여성인력으로 구성된 TF팀 ‘위드(WITH·Women In Tomorrow Hanwha)팀’을 운영하면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고 여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한화그룹 여성 직원들은 임신 중 근무시간을 단

축하거나 아이가 첫 돌이 될 때까지 야근을 금지하는 등의 탄력근무제를 통해 업무 부담을 크게 덜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본격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화그룹은 글로벌 선도 기업에 부합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조직문화 혁신에는 그룹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진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선호도 조사, 직급별 워크숍을 통한 세부 의견 등이 반영돼 있으며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해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PPT 보고 없애고 하·동계 휴가 사용 독려



두산은 ‘인재의 성장과 자립’이라는 경영철학에 뿌리를 두고 일과 가정이 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두산은 전 직원에게 ‘집중 휴가제도’를 권장한다. 장마와 무더위로 업무효율이 떨어지기 쉬운 7~8월에 2주일의 휴가를, 겨울에는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1주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여름 휴가의 경우 개인 연차 5일에 더해 회사에서 휴가 5일을 제공한다. 휴가의 최우선 목적은 ‘재충전’이며 ‘잘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두산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맞아 근태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추가 근무나 휴일 근무는 팀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해 불필요한 휴일 근무를 지양한다. 2월부터는 국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PC 오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무시간 효율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두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룹에서 파워포인트(PPT)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격식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목적에 맞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일상적인 보고나 단순한 내용 공유는 별도 보고서 없이 이메일이나 구두로 보고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했다.



㈜두산이 지난해 7월 임직원 자녀를 인천공장에 초청해 ‘엄마, 아빠랑 회사 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두산그룹

근무시간에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복장 자율화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일부 계열사에서 매주 금요일에만 실시하던 ‘개주얼 데이’를 올해부터 전 계열사로 확대했다.

또한 두산은 계열사별로 임직원 자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두산은 서울, 인천, 창원에서 미취학 아동을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엄마, 아빠랑 회사 가요’ 행사를 열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사업장을 견학하며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요리, 예코백 만들기, 아빠 놀이학교 등 체험 활동을 했다.

복장·출퇴근 시간 자율화로 업무 효율 증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트렌드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임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직원들이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삶의 질을 높여 일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사회를 맞아 임직원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 복장을 자율화했다.

금호건설은 직원들이 직접 발족하고 운영하는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12개의 동호회(등산·캠핑·볼링·테니스·축구 등)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동호회 활동 시 직원 가족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각기 다른 부문(팀)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동료 간의 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해 직원들의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연차휴가 신청 사유 보고 강요하지 않기’ ‘매월 1일 이상 사용하기’ 등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회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양한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임직원 자녀 60여 명을 대상으로 연 ‘아시아나 축구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축구경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호아시아나그룹

로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매년 실시하는 대학생 취업 선호 기업 조사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상위권으로 뽑히는 등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상호 소통을 통해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직원 자녀 대상 축구교실을 개최한다. 축구교실 행사를 통해 자녀들의 체력과 협동심을 향상시키고 임직원과 가족들이 상호 화합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 통해 맞벌이 육아 부담 ‘훨훨’



효성은 일과 삶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의 행복이 회사 성과의 밑거름’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효성은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지정휴무일을 사전 공지하고 리프레시 휴가제를 운영해 장기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재충전을 바탕으로 평소 업무 몰입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정휴무일제는 휴일과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근무일을 회사의 휴무일로 지정해 장기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설과 추석 기간 및 공휴일을 포함해 총 5일을 공식 휴무일로 사전 지정했다.

연차휴가를 붙여서 사용하는 리프레시 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계 휴가와 별도로 연휴와 개인 연차를 조합해 장기 휴가를 가도록 한 것이다. 회사는 지정휴무제와 연계해 최장 11일까지 휴가를 가도록 장기 휴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회사가 제시한 휴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별도로 희망하는 기간이 있으면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효성은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 본사를 비롯해 창



효성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실시하는 패밀리데이에 가족들이 회사를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

원공장, 울산공장 등 세 곳에 ‘효성어린이집’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 유해 요소 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자재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등 최적의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문 위탁업체의 우수한 교사들이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해 직원들이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회사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저녁까지 운영해 갑자기 퇴근이 늦어지더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데다 가까운 곳에 있어 아이 상태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종이 대신 전자결재... 週 52시간제 시너지



NH농협은행은 1분기부터 100여 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전면 퇴출했다. 전국 1135개 지점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점 마감 후 통상 30분 이상 소요되는 결재시간이 5분 내외로 단축됐다. 이로 인해 약 11억 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직원 근로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3월 업무 프로세스 혁신 일환으로 ‘이미지 결재 시스템’을 전국 지점에 도입했다. 기존 100여 장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이미지 전자결재로 전환하는 전산 개발을 마무리했다. 세 번의 전 지점 테스트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농협 지점에서 마감 후 발생하는 모든 종이서류는 전자결재로 이미지화해 대체된다. 여신과 수신 외환, 카드 모든 업무가 포함되며 1차로 사라지는 종이문서만 60종에 달한다.

일부 은행이페이퍼리스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모든 영업점 생산문서를 퇴출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이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춘 영업점 근로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농협은행 지점은 내부 통제를 목적으로 창구 업무별로 매일 100여 종의 종이문서가 출력, 생산되고 있다. 이를 모두 전자결재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



주재승(가운데) 부행장이 RPA 컨트롤룸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은행

해 4월부터 ‘종이 없는 사무실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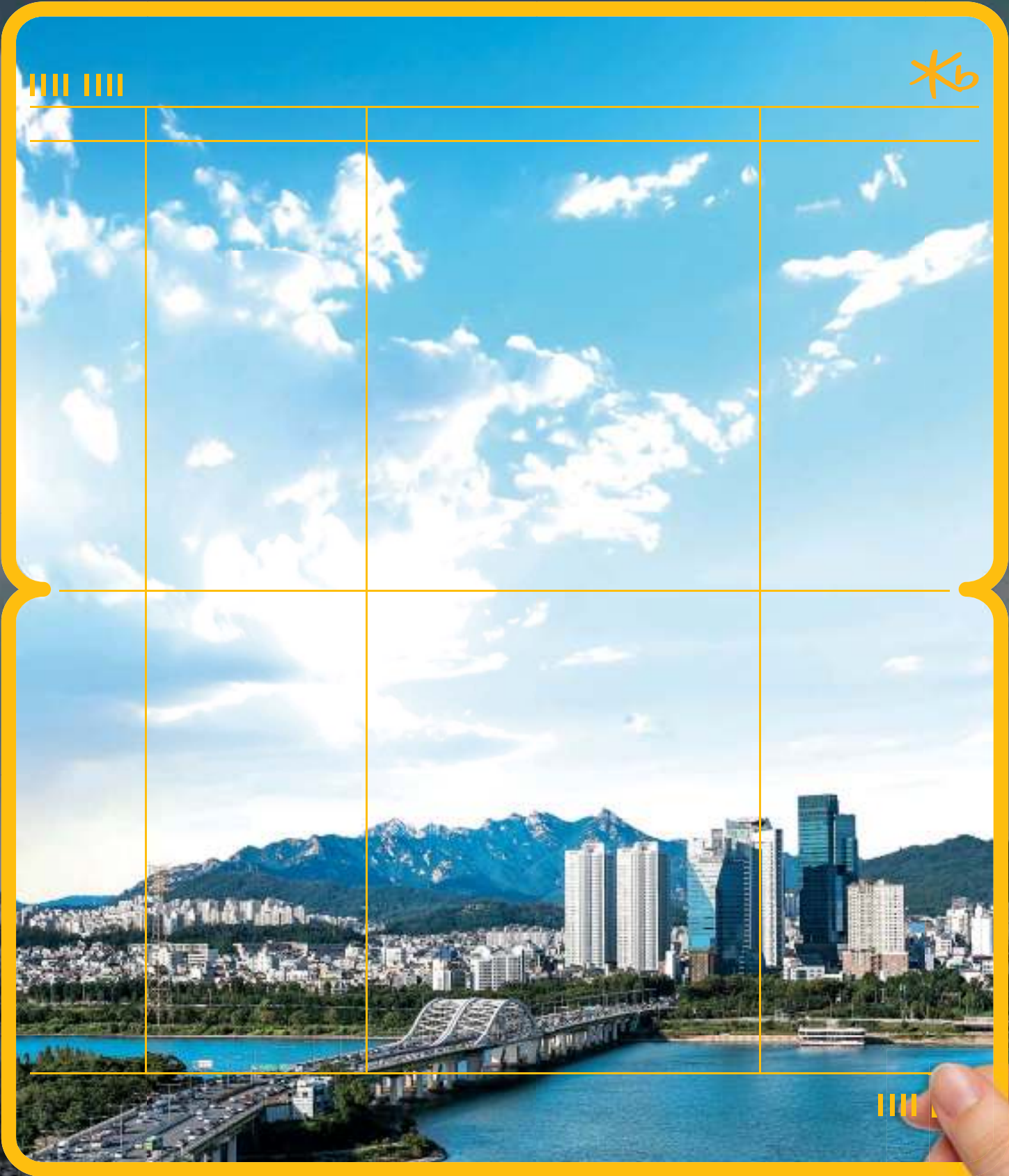
이번 전자결재 도입은 농협은행 노사가 공동 추진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조에서 영업점 자료 과다 출력과 보관에 따른 문제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대안 마련을 요청했고, 노사가 공동으로 자료 출력 기능 등을 대폭 개선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 마감시간 단축으로 영업직원 근로시간 근로환경 개선과페이퍼리스에 따른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하늘의 색을 바꾸다

KB맑은하늘적금 | KB맑은하늘공익신탁 출시



KB맑은하늘적금

1계좌당 1천원씩 기부하여 맑은하늘 숲 조성

[우대 금리 제공] 종이 통장 미발급, 대중교통 미선 달성 시 등
[무료 보험 제공] 대중교통/자전거 상해 관련 최대 2억원 보장



KB맑은하늘공익신탁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보일러 기부 사업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한 고객이 신탁보수(선취)의 10%를 기부하는 공익적 금융상품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KB맑은하늘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세요.

[KB맑은하늘공익신탁] ※ 상품 가입전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발생하는 선취보수(1%)의 10%를 환출받아 기부하는 상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0308호(2019.03.13)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1084호 (유효기간 : 2019.12.31까지)

“알바 사라진 식당…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실감”

‘청년세대 소통 위해 알바체험’ 신보라 한국당 의원

“근로개선 좋지만 일자리 없어지면 무슨 소용” 업주들 하소연
출산 후 워킹맘 현실 절감 … ‘육아 지원’ 의정활동 역점 둘 것

‘싸움꾼·기득권·권위주의’.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부정적 이미지다. 국회의원에 대한 좋은 평가는 이 같은 이미지와 상반된 행보를 보일 때 나온다. 기득권과 권위를 내려놓고 일반 국민의 삶으로 향하는 정치인의 활동은 그 자체로 시선을 끈다.

최근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아르바이트 체험에 나선 국회의원이 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신보라(36·초선) 의원이다. 신 의원은 16~18일 3일간 신촌, 고양시, 가락동 등 수도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알바생 체험’이다. 신 의원은 “청년 알바생의 애로사항을 몸으로 느끼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현장에서 신 의원이 마주한 첫 느낌은 ‘당혹감’이었다고 한다. 예상과 달리 실제 식당에서 일하는 청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제가 일한 식당은 부부 단 둘이서 일하는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4개

월간 쓰던 알바도 잘랐다고 한다”며 “다른 식당에서는 함께 일한 직원분은 구인구직신문(벼룩시장)의 페이지수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번 체험을 계기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장사가 되지 않으니 사람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며 “청년 알바생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이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예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아르바이트 체험에서 청년 알바생을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신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청년 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갖고도 약화하는 청년실업률로 인해 자존감마저 크게 상처받고 있다”며 “학업, 일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신보라 의원은 16~18일 3일간 수도권 식당 3곳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은 신 의원이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나르는 모습. 사진제공 신보라의원실

리, 주거 등 청년들이 생애주기에 겪는 여러 사안에서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식당 아르바이트를 ‘보여주기’일 뿐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의 몸 상태는 무리한 노동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첫 아이를 출산한 이후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해서다. 신 의원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 여자가 출산 후 회복하는 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산후 45일가량 쉬고

나왔는데도 걷는 것과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아 힘들었다”고 했다.

‘새내기 워킹맘’으로서 신 의원은 육아 지원 제도 관련 의정활동에 열정적이다. 3월 임시국회 때는 ‘야기동반 분회의 참석 요청’을 거부당한 일이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산후 여성에게 가족과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출산을 통해 절실히 느꼈다”며 “젊은 부모와 워킹맘의 출산과 육아를 돕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NH농협생명 ‘농·축협 연도대상’
동해농협 윤순복 지점장 수상



NH농협생명의 제31회 연도대상 수상자인 윤순복(가운데) 강원 동해농협 지점장과 김병원(오른쪽) 농협중앙회 회장, 홍재은 NH농협생명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28일 농·축협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5일 대전 유성구 호텔 ICC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보험 판매 우수 농·축협 직원 192명과 사무소 50개가 수상했다. 대상은 강원 동해농협 윤순복 지점장이 받았다. 윤 지점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사무소 부문에서는 충남 서부농협과 경남 문덕농협이 4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고객과 농협생명 상품을 이어준 농·축협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농협생명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1등 생명보험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이투데이, 기자협회 축구대회 '3위'

이투데이는 27일 서울 중랑구 중랑구립잔디운동장에서 열린 제47회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축구대회에서 채널A를 꺾고 4강에 진출, CBS를 누르고 올라온 SBS를 승부차기 끝에 4대 3으로 제압해 3위를 차지했다. 비록 준결승전에서 우승팀인 동아일보에 졌지만, 5승 1패로 매일경제에 이어 3위를 차지해 ‘이번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귀타이밍 “후궁은 국가 중대사에 입 열면 안 돼”
아내 출마 반대에 ‘여성 멸시’ 발언했다 구설

최근대만 총통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귀타이밍(69·사진) 홍하이정밀공업 회장이 아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고 2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아이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귀타이밍 회장은 17일 중국에 대해 융화 노선을 표방하는 최대 야당인 국민당 소속으로 총통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후 대만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인 쟁신잉(45)이 출마에 항의하며 가

출했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문제가 된 것은 귀 회장이 25일 “정치와 군사 등 국가의 중대한 일들에 대해서 후궁이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에서는 “여성을 멸시하는 발언” “충동이 아니라 황제가 될 것”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귀 회장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유가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면서 “청렴을 유지하고 가족이나 친구에 의해 결정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삼성바이오, 소외계층 자녀 20명 장학금 1억2000만원 전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드림 플러스’ 3기 장학생 20명에게 1억2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바이오 드림 플러스 사업은 인천 지역 내 탈북민자녀,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

학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매월 일정한 기부금을 모금해 조성하고 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은 바이오산업 소개 및 현장견학을 비롯해 장학금 전달, 도서 및 선물 증정, 멘토들과 함께하는 오르골 만들기 등을 통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정세균 前국회의장·이상일 일진글로벌 회장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내달 5일 개교기념일 ‘고대인의 날’ 행사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교우회가 개교 114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고대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고려대는 개교기념일이자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고려대 중앙광장과 박물관 등지에서 △개교기념일 캠퍼스 사진 콘테스트 △박물관 깨비들을 찾아라! △1대 1 진로 진학 상담 △추억의 졸업사진 촬영 △나눔바자 및 직거래장터 △먹거리 부스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캠퍼스 투어 등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고려대 운동부 학생들은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축구(여자축구 포



함)로 나누어 어린이들과 스포츠체험 놀이를 진행한다.

같은 날 10시 30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는 ‘개교 114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상일 일진글로벌 회장(상학 57·왼쪽 사진)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법학 71·오른쪽)이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받는다. 기정아 기자 jjonga1006@

부음

▲주중남(서울대 공과대학 기계항공학부 교수) 씨 별세, 이화준(KBS 관현악단 단원) 씨 남편상, 주진호(미국 조지아텍 디지털미디어학 박사)·미호(대상트 글로벌 리테일 사원)·영호(서울대 공과대학 기계항공학부 석사과정) 씨 부친상, 박현우(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영대학 교수) 씨 장인상 = 2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30분, 02-2072-2018
▲이덕구 씨 별세, 광용(사업)·광진(경

실련 조직위원장)씨 부친상, 김성식(사업)·조성범(모리셔스 국토부장관 교통정책자문관)씨 장인상 = 28일, 인천 메디플렉스세종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30분, 032-240-8444

▲김학우(전 삼성화재 감사) 씨 별세, 김원기(큐브파트너스 대표이사)·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혜진(주부) 씨 부친상, 오금석(태평양 변호사)·최영경·성묘은 씨 시부상 = 27일, 삼성의료원장례식장 15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15

인사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안상열 △소득주도성장추진단 파견 주태현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부 정인권 △기획재정부 이상운 △기획재정부 신상훈 ◇서기관 승진 △홍보담당관실 안순현 △사회적경제과 윤영수 △재정전략과 강승민 △타당성심사과 정성철 △경영관리과 이찬중 △외화자금과 이재화 △통상정책과 변성만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별정직 고위공무원·재임용) 이혜진 △장관 정책보좌관(별정직 3급·신규임용) 김진욱 △차관실 류재혁 △부경대학교 최희덕 △한국해양대학교 조기문 △기획조정실 이보배 △중소벤처기업부 파견 김은미 △순천대

학교 이정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정부청사관리본부 인천청사관리소장 길영선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홍창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정인권

◆중소벤처기업부 ◇서기관 승진 △정책평가조정과장 전세희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박도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승진 △기획조정과 최영근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이동원 △기업거래정책과장 성경제 △입찰담당조사과장 신윤희 ◇과장급 직위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정영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최준우 ◇과장급 전

보 △금융소비자과장 이명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화장품정책과장 최미라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장 이동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중유해물질팀장 문귀임

◆한국마사회 ◇상임이사 임용 △상임감사위원 정기환

◆KBS △기술본부장 이창형 △창원방송총국장 하원 △청주방송총국장 유용 △춘천방송총국장 김혜례 △울산방송총국장 조남희 △안동방송총국장 이육동 △강릉방송총국장 이정환

◆세계일보 △평화연구소 부소장 옥영대
◆아시아경제신문 △애드마케팅본부상무이사 김성현 △애드마케팅본부 부국장 대우 임승재

인보사 사태, ‘K바이오’에 藥 되려면

“일반적인 상품은 문제가 생기면 애프터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더 문제가 커지면 리콜 서비스도 있다. 그런데 생명과 직결된 제품인 의약품은 애프터서비스나 리콜이 있을 수 없다. 의약품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 이번 인보사 사태도 코오롱의 잘못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그동안 무릎 관철에 약이 없었던 환자들이 인보사 주사를 맞고 조급이나마 통증 완화 효과를 봤을 텐데 이제 와서 독을 준 것이냐며 몰아붙이니 신약 개발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난하다는 걸 뼈아프게 느낀다.”(국내 제약사 한 임원)

그의 말처럼 제약 산업은 자동차 등과 같은 일반 제조업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사망감도,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도 확연히 다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세포 성분을 잘못 알았을 뿐이라는 코오롱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가 지나면서 ‘인보사 게이트’로 퍼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사기 기업”, “정부와 기업의 유착이 빚어낸 ‘게이트’”, “제2의 황우석 사태”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코오롱생명과학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인보사 시판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허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도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 취임한 후 2017년 허가 결정이 난 것은 현 정권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의

데스크칼럼

이 효 영

부국장 겸 유통바이오부장



혹을 제기했다.

결국 인보사 논란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우려대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던 정부 정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악재로 닥쳤다. 과거 ‘황우석 사태’로 국내 줄기세포 산업 규제가 늘고 해외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냉대받았던 경험이 있는 업계로서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조차 기자회견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두려운 점은 저희의 실수 하나가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사과했을 정도다.

하지만 십수 년 전 황우석 사태가 발생했을 때와 지금은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위상이나 글로벌 경쟁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국내 제약 산업은 오랜 세월 동안 다국적업체가 선점해온 화학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합성의약품)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다국적기업들과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는 바이오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다. 한 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신약은 1000개에 육박한다. 국내 의약품수출액

은 2008년 1조2666억 원에서 2017년 4조6025억 원으로 3.5배가량 늘었으며, 기술 수출은 2017년 1조4000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5조3706억 원 규모로 3.8배 늘었다.

정부는 인보사 논란 속에서 지난해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을 3대 중점육성 분야로 지목하고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은 모든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적 책임 등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10년이 넘도록 세포명을 잘못 알았다는 코오롱도 문제이지만,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2017년에 시판 허가를 내준 식약처는 더 큰 책임이 있다. 일부 여론에서 정부 실책이 모자라서 바이오 산업을 키울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책을 꺼내들어서 안 될 일이다. 반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정밀한 조사,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검증은 강화하되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는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렵다고 외면한다면 반도체, 자동차를 잇는 우리 미래 먹거리를 포기하는 일이 된다. 정부와 업계는 보다 투명성을 갖고 K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 실력과 신뢰를 갖추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hylee@

조남호의 중구난방



자본시장1부 차장

매년 주주총회를 전후로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논란에 휩싸인다.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체인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형식상 자리만 채우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올해 주총 시즌에도 이러한 관행은 끊이지 않았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작년 57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251개 상장사 사외이사의 안건 찬성률은 99.66%에 달해 전년 99.62%보다 소폭 올랐다고 한다. 부결은 KT 2건을 비롯해 삼성과 SK, 롯데, KT&G, 태영 등에서 각각 1건이 나오는 데 그쳤다. 또 46개 그룹의 이사회에서는 부결이나 보류가 단 한 건도 없이 100% 찬성을 기록했다. 사외이사들이 매년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거수기 노릇조차 외면하는 사외이사들이 적지 않다. 이사회에 출석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A사의 B 사외이사는 작년 열린

‘거수기’ 노릇도 외면하는 사외이사

53회의 이사회에 단 두 차례 참석해 찬성 의견을 개진하는 데 그쳤다. 출석률로 따져보면 3.8%에 불과하다. 이처럼 저조한 출석률은 직전 해와 비교한다면 그나마 개선된 수치다. B 사외이사의 직전해 출석률은 1.5%에 그쳤다. 그럼에도 A사는 B 사외이사에게 지난해 보수로 평균 수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주총에서 B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B 사외이사는 수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C사의 D 사외이사도 상황은 비슷했다. C사는 지난해 법조인 출신으로 힘 있는 부처의 장관을 지낸 D 씨를 사외이사로 모셨다. D 사외이사는 선임 이후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게 세 번에 그친다. 출석률로는 30% 수준이다. 장관 시절 쫓쫓하고 당당했던 모습에 반추해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D 사외이사의 출석률이 어떻게 간에 C사는 회사에 있는 사외이사들에게 평균 수천만 원을 보수로 줬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찾아본 것으로, 출석률이 저조함에도 상당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거나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경우도 부지기

수다. 한 상장사는 무려 십 년이 넘는 동안 출석률이 0%임에도 재선임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출석률이 저조한 사외이사들은 마치 짜기라도 한 것처럼 대다수가 오너가와 인연이 있거나 유력 정관계 출신의 인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가 로비스트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평가절하되곤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지배주주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 직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게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목적이고, 사외이사 존재하는 이유다.

기업들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는 한다. 그러나 기업 경영의 핵심인 이사회 개혁 없이는 헛된 수고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기업 스스로가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외이사를 영입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에 성실하게 참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전제해야 할 것이다.

spdran@

사설

동남권 신공항 소모적 논란 멈춰라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이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총리실에 정책판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더 가열될 수밖에 없게 됐다. 부·울·경 검증단은 24일 최종보고회에서 김해신공항이 소음·안전·경제성·확장성·환경훼손 등은 물론, 정책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내려진 김해신공항 결정을 뒤집자는 것이다. 부산시가 앞장서 김해신공항을 무산시키고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의도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10여 년간 영남지역 갈등을 키운 정치적 화약고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정동영 후보의 공약경쟁으로 논란이 촉발됐다. 경제성 부족으로 2011년 백지화했지만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재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밀양을, 부산·경남이 가덕도를 후보지로 밀면서 지역 간 충돌이 빚어졌다.

결국 정부는 2016년 6월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보완하는 대안으로 정리했다. 신공항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가덕도와 밀양 모두 부적합하고,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부·울·경과 대구·경북 등 5개 광역단체장도 용역결과를 수용키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거돈 부산시장이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다시 들고 나왔다. 여

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울산·경남 단체장들도 공동으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했다.

갈등을 증폭시킨 건 문재인 대통령이였다. 문 대통령은 2월 부산을 방문해 “영남권 5개 지자체의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총리실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전제해 놓고 진행한 부·울·경의 검증이 어떤 신뢰성을 갖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소음·안전성 등에서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없다며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해 2026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부·울·경 검증결과에 대해서도 오류를 지적하면서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건설계획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동남권 신공항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입지를 바꾸려면 대구·경북도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이들은 벌써 부·울·경의 총리실 재검증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엄청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김해신공항은 세계적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결론이 내려지고 관련 지자체들이 받아들인 결과다. 이를 재론하는 것부터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정치적 행위다. 그 요구가 지역 간 합의를 이뤄내기도 어렵다.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민심과 국론의 소모적 분열만 키울 뿐이다. 더 이상의 논란을 멈춰야 한다.



표변(豹變)

표범의 털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만큼 관리 잘하기 때문이다. 표범은 자신의 털이 안개에 싸이거나 비를 맞으면 추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날씨가 궂으면 아예 바깥출입을 않고 굴속에 숨는다고 한다. 이처럼 털 관리를 잘하는 표범은 가을철이 되면 모든 털이 털갈이를 마감하게 함으로써 무늬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다워진다고 한다. 이로부터 ‘표변(豹變, 표범 표, 변할 변)’이라는 말이 생겨나 표범이 완전한 털갈이를 하여 더욱 아름다운 무늬를 갖듯이 사람이 허물을 고쳐 말과 행동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착해지는 것을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주역(周易) 혁괘(革卦)의 효사(爻辭)에는 “군자표변(君子豹變), 소인혁면(小人革面)”이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표변하고 소인은 낫은 고친다”는 뜻이다. ‘혁’은 흔히 ‘가죽 혁’이라고 혼동하는데 동물의 완전한 털갈이에 대한 비유로부터 변혁(變革), 혁신(革新), 혁명(革命) 등의 단어가 파생되었다. 그런데 ‘小人革面’은

몸체는 그대로 둔 채 ‘面(얼굴 면)’만 변혁(變革)한다는 뜻이다. 표범처럼 온몸이 완전한 털갈이를 하는 군자의 변화와 달리, 소인배는 진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얼굴만 변하는 체한다는 뜻인 것이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잘못된 정권을 바꿨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촛불혁명의 정신이 적잖이 희미해지는 것 같다. 나만 이롭자고 촛불을 든 게 아니라, 공공의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것인데 지금은 내 앞에 닥친 작은 이익을 더 챙기다 보니 촛불혁명에 담긴 정의의 정신이 자꾸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혁명 전에 자행되었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촛불혁명의 정신이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표변이라는 말이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변절’이라는 뜻으로 오용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君子豹變’의 본래 의미를 구현할 수 있을까?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pring, 2019

My Story with Galaxy S10 5G

4K Live Streaming + Galaxy S10 5G



여행 크리에이터 송다의 S10 5G 리얼 스토리

고가의 장비 없이도 고퀄의 여행 라이브방송 어렵지 않아요

여행을 사랑하는 꿈나무 크리에이터

원래 여행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어요. 자연스럽게 여행지에서 느낀 감정들을 사진으로 기록해왔죠. 폰 속에 가득 차 있는 사진들을 혼자만 보기 너무 아까워서 소소하게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사진만으론 그때의 감동이나 제가 받았던 느낌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갤럭시 S10 5G를 만나 본격적인 여행 크리에이터의 길로

그래서 저도 크리에이터가 되어볼까 하고 채널을 개설했어요. 결혼 후 하던 일을 그만두면서 시간적 여유도 생겼거든요. 가지고 있던 카메라와 기본적인 편집 프로그램 가지고 영상 몇 편을 올려봤는데, 기대보다는 반응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많이 하는 라이브방송은 역시나 어려웠어요. 괜찮은 방송용 카메라는 800만원을 호가하는 데다 그 무거운 장비를 여행지마다 들고 다닐 엄두도 안나고요. 그러던 차에 접하게 된 갤럭시 S10 5G는 그야말로 저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었어요. 4K 고화질로 촬영이 가능한데다 '카메라파이 라이브'라는 앱으로 라이브방송 도중 자막이랑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으니까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4K 촬영과 라이브방송이라 가능했던 잊지 못할 순간

최근에 멀리 떠날 수 없는 시청자들을 위해, 가까이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 힐링 여행 컨셉의 영상을 촬영했어요. 잔잔한 음악을 깔고 봄 느낌 가득한 숲을 촬영하는데 저 멀리 노랗게 고개를 내민 꽃 한송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당겨서 확대했는데, 4K 고화질이라 깨짐 없이 꽃잎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었죠. 긴 거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감동적이어서 감성적인 자막까지 바로 삽입해 라이브로 방송했어요. 요즘 라이브방송 크리에이터가 꿈인 분들이 많은데, 저처럼 갤럭시 S10 5G로 가볍게 시작해보면 어때요?

* 갤럭시 S10 5G는 5G 통신을 지원하는 지역에서만 5G 속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G 통신은 5G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됩니다.
* '카메라파이 라이브'는 삼성전자의 서비스입니다. 5G 통신은 5G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됩니다.



SAMSUNG